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101 1983년 4월 7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hursday, April 7, 1983

APR 7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주택 매매 활기

3월중 토론토지역 3,236건 거래

81년봄 이상붐이후 월별최대건수

◆롬·보슬리 TREB위원장

지난 3월중 토론토지역의 주택 매매건수는 토론토부동산 사상 세번째로 많은 총 3,236건을 기록했다.

토론토부동산위원회(TREB)회장 롬·보슬리씨는 5일 "현재의 시장은 이상열기를 보였던 지난 81년 봄보다는 훨씬 건강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지난 수개월간 누적돼 온 수요및 그동안 하락세를 보인 모기지 이자율과 가격안정들의 요인이 잘 맞아떨어져 매기가 오른것 같다고 분석했다.

토론토 부동산 거래사상 최대의 붐을 보인 81년도 3월 한달의 주택 매매건수는 5,040건, 81년 4월 한달의 매매는 총 4,737건으로 당시 시장에 나온 주택중 팔린 집의 비율은 55%였다.

83년 3월중 팔린 주택의 팔주택에 대한 비율은 17%로 2년전보다는 훨씬 구매자에 유리한 시장이다.

메트로·토론토 지역의 3월중 매매 평균가격은, $102,615로 2월중 평균 $106,047보다는 내렸으나, 지난 1월중 $96,823보다는 올랐다.

그러나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므로 수요공급이 원칙에 의해서도 오를 가능성이 약간 있긴 하다는 것이 부동산업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집매매에 크게 문제가 되는 모기지이자율은 4월6일 현재, 1년형이 연 11½%, 3년형 12¾%까지, 5년형이 13¼%까지 떨어졌으며, 이 자율은 앞으로도 계속 안정세를 유지할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토론토 도미니언(TD)은행의 모기지책임자 빌·클락슨씨는 5일 작년에 극히 저조하던 대출량이 지난 3, 4개월간의 점진적 호조를 보였으며, TD은행의 모기지고객의 80%가 장기모기지를 얻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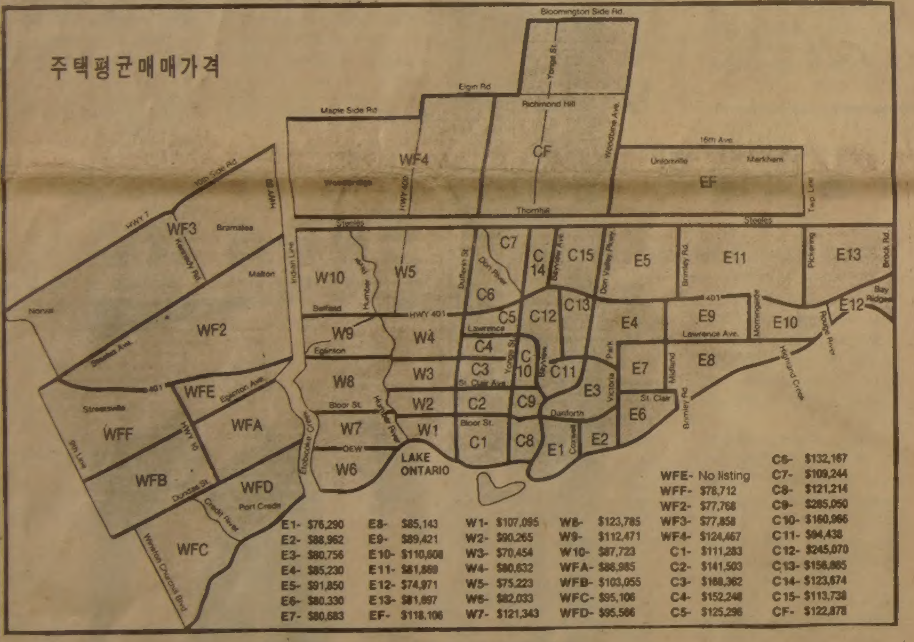
TREB의 보슬리회장은 만약 이자율이 지금보다 1~2%만 올라가면 지난 81년도의 붐과 비슷한 성급한 매입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 교민부동산업자는 6일 "81년도와 같은 붐은 다시 올 것 같진 않다. 다만 작년에 지은 새 집의 숫자가 적어 당장 집 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2, 3년후에는 틀림없이 오른다"고 말했다.

지난 81년에는 살려는 사람들의 경쟁이 심해 리스트에 내놓은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매되는 기현상이 빚어졌었다.

토론토 부동산위원회가 발표한 83년 3월현재 새 집을 제외한 지역별 집매매 평균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독신청·광고
533-2361



◆83년3월 현재 지역별 주택매매 평균가격표

코너스, 보그 눌러

세트·스코어 3대2, 서울테니스 친선경기

(서울6일=연합)테니스 친선시범경기차 내한한 지미·코너스선수와 비욘·보그선수의 대전에서 지미선수가 세트스코아 3:2로 보그선수를 제압했다.

6일밤 잠실체육관 코트에서 열린 두선수의 경기는 누가 더 많은 실수를 하는가에 초점이 되었다.

이날밤 총경기에는 2시간30분이 소요되었다.

경기에 들어가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그선수(26세)는 "누구나 동기가 중요하듯이 나는 테니스를 그렇게 즐기지 못하며 게임하는것이 힘들다"고 말하고 지난 1월 발표한 은퇴 선언에 대한 번복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오늘 갖는 지미와의 경기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며 즐거운 일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번 만나 게임마다 좋은 경기를 가졌다"고 말했다.

한편 보그선수와는 달리 나이가 많은 지미·코너스선수는 "나는 아직도 직업적인 테니스를 즐기며 서울서 갖는 시범경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두 선수는 친선경기를 위해 5일 서울에 도착했다.

이들에게 지불되는 상금은 총$14만이다.

테니스의 황제라고 불리는 보그선수는 1976-80년의 5년간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윔블던테니스의 5연패를 기록했으며 프랑스오픈등의 유수한 게임을 휩쓸었다. 코너스 역시 L.A., 라스베가스, 윔블던, 콜럼브스오픈과 작년도 U.S.오픈에서 우승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은경양

1983 후보 제5호 이은경양

뜨게질이 특기

미스코리아 후보 5호로 등록한 이은경양은 7남매의 막내답게 발랄하고 깜찍한 아가씨. 경기도 부천 출생인 은경양은 62년생으로 20세. 국민학교 4학년부터 시작한 배구는 그의 특기이며 경기도 대표로서 전국체전에 여러번 출전한 경력도 있다.

뜨개질이 취미라고 하는 은경양은 영타 1급 한타 2급의 공인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실력파타자수이기도 하다.

인천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1981년에 어머니를 따라 캐나다에 이민, 앞으로 컬리지에서 회계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눈매가 이국적이며 개성이 강해보이는 것이 매력의 포인트라고 주위에서 평을 듣고 있다는 이양은 신사임당을 가장 존경하며 피자와 장미꽃을 좋아한다.

미스코리아가 된다면 본선에 진출, 세계미녀들과도 겨룰 기회를 갖고 싶다고. 165cm, 51Kg, 34-24-35.

한국어강좌 신설

조지·워싱턴대와 코넬대

(워싱턴5일=연합)미국의 조지·워싱턴 대학과 코넬대학이 금년부터 한국어 강좌를 실시한다.

5일 워싱턴의 조지·워싱턴대학은 최근 금년 6월10일부터 시작되는 여름학기에 2년 기간의 한국어 코스를, 또한 코넬대학은 9월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학기에 이와 유사한 강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에서 한국어 강좌를 갖고 있는 대학은 모두 7개로 이번 두 대학을 합치면 모두 9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토론토 한국일보

社 告

김명규 발행인

2주간 고국방문

본 토론토·한국일보의 발행인인 김명규사장이 서울 한국일보본사의 각 해외지사장 연례회의 참석차 지난달 29일 토론토를 출발했다.

약2주일간 예정인 이번 출장길에 김사장은 뱅쿠버, 에드먼톤을 방문, 현지 유지들과 면담하며, 본 토론토·한국일보지사를 돌아보았다.

귀임길에 김사장은 도꾜와 위니펙등지도 방문한후, 12일 토론토에 도착할 예정이다.

(에드몬톤=김문자통신원)토론토 한국일보 발행인겸 사장 김명규씨가 서울 출장도중 이곳에 들려 지국장 유인형씨, 신임한인회장 강형권씨, Alberta대학교수 배학순박사, 그리고 방송후원회 오세희씨 등을 만나 에드몬톤 교포사회 관심사를 논의한 후 4월1일 한국으로 떠났다.

은하 보석
관동화장품 대리점
ROLEX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허소지업체
오메가시계 45 % ~ 50 %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3/10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8.5%		7.5%
90일	9.0%		7.5%
180일	9.0%	8.75%	7.5%
365일	9.0%	8.7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83년도
신세계
구라파 단체관광

IATA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김 창 범
R) 492-7525

여행을 즐기십시요.

	A일정	B일정
출 발	1983년 7월23일(토) ※동시출발	
귀 환	1983년8월8일(월)	1983년 8월11일(목)
기 간	17일간	20일간
요 금	$1,850(2인1실)	$1,625(2인1 실)
방문지	9개국 : 영국·벨기에·화란·서독·오지리 이태리·모나코·스위스·불란서	
요금에포함된사항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지상및해상교통비 ●세금및봉사료 ●관광지입장료 ●식사(3개도시 제외하고 아침및 저녁식사 제공)	
신 청	등록 : 1983년 5월31일 계약금$300불입 마감 : 1983년6월25일 잔액지불(30명 선착순)	
기 타	1. 영국행 항공요금의 인하로 관광요금을 재조정하였음. 2. 한국인 안내자 동반 3. 동일한 관광일정이지만 호텔·식사및 관광내용의 질에 요금차이 발생. 4. 4년째실시하는 경험을 토대로 가장 추억에 남을만한 일정만을 선택함. 5. 캐나다일시방문자의 참가를 환영(비자및 재입국관계협조)	

「신세계」는 여러분의 여행을
가장 추억에 남도록 도와드리겠읍니다.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이민중지하라」발설로 물의빚어

코메디언어 보수당 선거자금마련파티서 망언

캐나다의 직업 코메디언인 데이브·브로드풋(Dave Broadfoot)씨는 5일 정치인들이 모인 대규모 집회에서 현 자유당정권은 외국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고 말해 참석자를 당황케했다.

브로드풋씨는 이날 저녁 쉐라톤·센타에서 열린 팀 브렐 온타리오노동무장관의 차기 온타리오부수당 당수출마 선거자금 모금 파티에서 지원연설을 통해 현 자유당정권의 전반적인 정책을 풍자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민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앵크로섹손족들이 중심이 된 이날 모금파티에는 연방정부 보수당 당수후보로 출마하는 죤·크로스비 전재무장관, 현직관료, 의회의원 100여명등 모두 1,800여명이 참석했다.

1인당 파티참석비는 150달러, 이날 파티에 교민으로는 윤방현「미스·코리아」집행위원회위원장과, 상공인협회 정창현 부회장이 참석했다.

윤위원장은 코미디언이 사석도 아닌 공석에서 이같은 망언을 한 것은 간과할 수 없다면서, 한인사회는 물론 소수민족이민자들은 이같은 처사를 엄중 항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전시회 24회

—인터네셔날·센타—

인터네셔널·센타(6900 Airport Road, Mississauga)에서는 4월부터 금년말까지 24회의 각종 전시회를 갖는다.

주요 전시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8회 연례 도자기쇼…5월6~8일

◉콤퓨터 쇼…6월23~26일

◉사냥및 야외장비 쇼…9월8~11일

◉토론토 스키 쇼…10월7~10일

◉장난감 쇼…10월14~16일

◉순차쇼·10월28~30일

◉토론토부동산및 건축자료쇼·10월27~30일

◉캐나다 뮤직쇼·11월25~27일

◉예술및 공예품쇼·12월9~11일

에어포트·로드와 데리·로드에 있는 인터내셔널센터의 전화번호는 667-6131이다.

불루제이스,보스톤 제압

7대1…시즌 첫게임 승리로 장식

토론토 불루제이스야구팀이 5일 시즌오픈 첫 대전인 보스턴 레드·삭스팀과의 경기에서 7:1로 제압, 서전을 장식했다.

보스턴의 훼웨이 파크(Fenway Park)구장에서 열린 이날의 경기에는 약3 4000명의 관중이 모여 양팀의 게임을 응원했다.

불루제이스는 에이스 데이브·스티브선수와 후속 로이·잭슨선수를 투수로 기용하여 선전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양팀은 오랜동안의 스프링캠프 훈련에서 봄이 풀리지 않은듯 많은 에러와 팀간의 불화가 잦았다.

5회의 경우 스티브선수가 던진 볼이 보스턴의 강타자 짐·라이스선수의 어깨를 맞자 1루로 가지 않고 투수에게 항의하며, 투수석으로 걸어나가자 주심과 포수가 달려가 제지시켰고, 양쪽 선수석에 있던 동료들이 뛰어나와 양팀간 팽팽하게 맞서 욕설과 긴장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2회에서도 보스톤의 에커슬리투수가 던진 볼에 멀린크스선수의 뒷잔등에 맞자 너무나 명백한 고의라고 주심으로 부터 경고를 받은바 있다.

멀린스스선수는 2회에 2점홈런을 때렸다.

이날 불루제이스는 가르시아, 업쇼, 콜린스, 바필드 선수등의 연타가 득점에 큰 도움을 주었다.

양팀은 7일 제2차전을 벌린다.

동국대학교 동문회 신임회장에 오창섭씨

3월19일 한인회관에서 개최된 동국대학교 동문회 83년도 정기총회에서 60년도 경제과를 졸업한 오창섭씨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부회장에는 유영목씨(60, 경제과)와 조방주씨(58, 국문과)가 각각 선임되었다.

쎄인트·폴성당서 전자올갠연주회

토론토 쎄인트·폴성당의 전자올갠 연주회가 4월10일(일) 하오3시 동성당(83 Power St.×Queen St. E)에서 있다.

아무나 와서 들을 수 있다고.

심령술 토론회

14일 오후9시…CITY-TV 생방송

온타리오·사이언스·센타에서는 오는 4월14일(목) 오후9시 대강당에서 휘스터(F.O.S.T.E.R.)주최의 심령술에 관한 궁금증을 얻기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심령가들이 과연 그들의 고집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의 주제로 심령술사인 요기·나라야나(Narayana)씨와 유심론자인 헨리·고든씨가 논쟁을 벌이게 된다.

이같은 논쟁이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밤 프로그램의 일부는 CITY-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토론의 평가는 법조계, 과학, 의학, 언론등의 저명한 사람들이 담당한다.

입장료는 $4이며 수입금은 자선기금으로 쓰여진다.

티켓문의는 전화 274-0351, 돌시·데스로체스씨에게 하면된다.

휘스터는 온타리오안에서 과학, 기술, 공학등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 친목단체이다.

82년에 3만명 이민

미국무성 발표, 방문비자 심사는 까다로와져

(뉴욕지사)82회계연도중(81년 10월-82년 9월)3만1백60명의 한국인이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이민온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국무성 영사담당 존코필드 대변인에 따르면 이중 1만1천17명이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혹은 21세 이하의 자녀)이며 나머지 1만9천1백43명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 취업이민 등으로 입국했다는 것이다.

82회계연도 첫 6개월간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B-1(상용)비자가 1만3백54명, B-2(방문) 9천3백32명, E-1(주재원)1천89명, F-1(학생) 1천8백73명이다.

국무성은 81회계연도중 한국인 약2만8천5백60명이 이민으로, 6만2천3백57명이 비이민비자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주한미대사관 영사과는 하루 약 1백명의 한국인에게 이민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미대사관은 한국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조치가 시행된 이후 비자발급 거부율이 증가 전체 비자신청자의 25%까지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최근 방문비자발급 심사를 엄격히 하여 미국을 여행한후 귀국해야할 절실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입국을 허용, 대체로 노인층에 관대하고 미혼여성들에게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제5의 사나이

<206>

헤로인 ①

그녀가 큰방문을 열고 "저속에 있어요"

그들은 아파트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것은 교외에 자리잡은 조그만 아파트단지였다。아파트라야 야산밑에 5층짜리 2개동이 덩그라니서 있을 뿐이었다。교통이 불편하고 시내와 너무 떨어져있어서 사람이들지않은 빈가구가 적지않았다。경비원같은 사람이 있을리 없었다。

여자는 연방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걸어갔다。

『으스스해요。어쩐지 감시당하고 있는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녀가 숲쪽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렇게 몸이 노출됐는데 감시가 있다면 벌써 발견했겠지。우물쭈물하지 말고 빨리 갑시다。태연하게 걸어가요。』

바두봉의 말에 그녀는 몸을 꼿꼿이하고 걸어갔다。

건물안으로 들어선그들은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계단을 비추는 불빛은 기분나쁠 정도로 침침했다。

그들은 5층까지 올라갔다。그 위는 옥상이었다。마침내 그녀가 걸음을멈추었다。

『여기예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는 문을 응시했다。「505」라는 숫자판이 붙어있었다。

『비어있나요?』

『네、아무도 안 살아요。버려둔채 잠겼거든요。』

그녀가 손을내밀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그녀의손에 얹었다。

『고마와요。』

수지는 열쇠를 골라내어 구멍에 꽂았다。찰칵하는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다。문이 열렸다。

수지가 먼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두봉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잠시어둠속에서 귀를기울이고 있었다。캄캄한 어둠이 그들을 엷어붙게 만들고있었다。

『뭐하고 있어요? 빨리 불을 켜요。』

『모세하고 저는 여기에 숨어살았어요。임시로 산거지요。물건만 처분하면 곧 외국으로 날을 생각이었어요。그런데 모세가 죽는 바람에 일에차질이 생긴거지요。』

집안은 지저분하기 짝이없었다。

그들은 신발을 신은채로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큰 방문을 열었다。

『바로 저속에 있어요。』

그녀가 무엇인가를 가리켰다。

그것은 금고였다。

그들은 방안으로 들어섰다。

『모세는 아주 철저했어요。나한테 금고넘버는 가르쳐주면서도 열쇠는 결코 주지 않았어요。열쇠는 항상 자기가 보관했어요。』

두봉은 아무 말 없이 금고만 바라보았다。

朴男 그림

제5계절

"여자이니까"

최경자(Parkwoods United 교회 교육목사)

◆최경자씨

어디선가 실수봉 이라는 여자가수가 부르는 인기가요를 들은적이 있다. 앞 뒤 구절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나는 여자이니까"라고 애뜻하게 탄식하는 곡조로 넘어가는 구절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매달려 있다.

여자이니까 상대방에게 사랑의 고백도 할 수 없고, 여자이니까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얘긴가 보다.

많은 남자들은 도매상에나 갔다오면 되고, 여덟시간 직장에서 이럭 저럭 시간 보내면 되고, 아니면 골프채를 힘껏, 마음껏 휘둘러 대던지, 죽기 아니면 까무라 치기로 팔·구십 마일의 고속으로 하이웨이를 달리던지, 또 아니면 OO회, ××회에 나가서 정치도 하고 큰 소리도 한번씩 치면 속도 후련해 지고 살맛도 제법 나겠지.

많은 여자들은 가게 카운타뒤에서, 키펀치·머신 뒤에서, 어셈블리 라인 뒤에서, 열을 뿜는 재봉틀 뒤에서 하루종일 시달리다가 버스에 몸을 싣고 집안에 들어서면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며, 부엌바닥 휩쓸고 다니면서 저녁준비 할 때 "나는 여자이니까" 한숨을 푹 내쉬고는 부글 부글 끓어오르는 불만과 좌절을 진정 시키리라.

얼마전 토론토에서 열린 이대동창 음악회와, 극단 "얼"의 창단공연 "맹진사댁 경사"를 관람하러 갔다.

나는 음악과 연극을 잘 모르지만 연주자들과 연기자들이 아름다운 연주복과 의상을 입고 무대에 등장하는 모습이라든가, 재능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과 말하는 대사에 몰입되는 것이라든가, 끝난후의 안도감과 성취감의 미소를 짓는 이 여자 음악인들과 연기인들에게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불만과 좌절이 환희와 긍지와 성취로 변화해서 연주자들과 연기자들, 또 관객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았다.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발달과정중 어렸을 때에는 여자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빠르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정도 크면 주위에서 "여자이니까"하는 압력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고 받기때문에 발달이 늦어질지도 모른단다.

"여자이니까"는 하나의 사회 규범이 되고, 법률이 되고, 모든 인간 의식구조에 속속 파고들어 굳게 자리를 잡게된다.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을 예로 들더라도,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 지나지 않으며, 생리작용하는 여자는 더러워서 만지지도 못하며, 여자는 성전 발치에나 앉으며, 기도도 못하고 글도 못 배우는 등등의 고대 유대인의 법률과 규범이 구약성서에 있다.

신약에 와서도 희랍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전서 기자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등의 여자를 억제하는 구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모든 크리스챤이 믿고 따르는 예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예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천주교에서 성모로 추앙받는 것은 주지하고라도 글 못 배운 여자들을 가르쳐서 제자로 삼고, 남녀7세 부동석의 관습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우물가에서 소문난 이방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12년동안이나 피를 흘리면서 수치감과 죄책감에 떠는 여인을 만져 병을 고쳐주고, 강간당했을지도 모르는 여자를 돌로쳐서 죽일려는 군중들을 말렸고, 법정증언대에도 세우지 않던 여자들을 예수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는가?

예수는 과연 여성해방운동가 였다.

예수는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었다는 기사보다는 창세기1장 12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더 잘 이해했기 때문이리라.

딸을 기르는 부모님들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님들, 또, 여동생을 귀여워 하는 오빠님들, "여자이니까"의 사회규범과 의식구조에서 해방되어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료 인간 여자들에게 세계 역사 창조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아량을 베풀어야겠다.

그리고 딸되고 아내된 여자들은 신데렐라처럼 어느 왕자님이 신발 한짝 들고 돌연히 나타나서 신겨줄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혈루병 환자처럼 피흘리며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성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분투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미스·코리아와, 미스·유니버스는 물론 이려니와, 여자 모짤트, 여자 미켈란젤로, 여자 아인슈타인, 여자 키케골과, 여자 루터가 한인의 2세, 3세 후손대대에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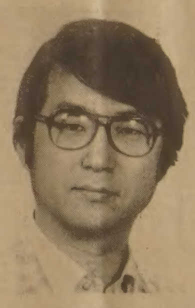
그러나, 예수와 같은 남자의 이해와 도움없이는 그 같은 일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 청승맞은 "여자이니까"는 아예 집어치우자.

신간서적

「길벗들의 대화」

종교의 허상과 실상을 밝힌 오강남박사 저서



◆오강남씨

캐나다의 사스카추언주 르자이나대학(University of Regina)에서 종교철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오강남박사의 저서 「길벗들의 대화」가 출판됐다.

성서교재간행사에 의해 발행된 이 책은, 종교의 허상과 실상을 밝히려는 오박사의 노력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길벗들의 인생문제, 종교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목적으로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누구든지 종교의 속성을 밝히 알아 허상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디딤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책에 담긴 주요내용들은 이미 북미의 각 교포신문에서 게재되어 왔던 것을 발췌한 것을 모아서 집대성한 것이다.

4편으로 나누어진 본서의 차례는 종교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자유에의 길」편, 진리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진리에의 길」편, 믿음과 실상과 허상을 밝히는 「믿음의 길」편, 종교와 생활사이, 이민의 현장에서 필요한 마음씨리즈를 중심한 「삶의 현장」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박사는 서울대및 대학원에서 종교철학을 전공한 후, 캐나다 맥매스터대학에서 종교학 전공으로 Ph. D를 취득했으며, 마이애미대학, 알버타대학, 마니토바대학등에서 종교철학을 강의했으며, 현재 르자이나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저자는 현재 한국일보사에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속담풀이를 통하여 민속을 통한 이민의 지향성을 예리하게 분석해 주고 있다.

가격은 권당 $10이며, 한국일보사 총무국으로 수표나 Money Order를 보내면 즉시 송부된다.

오강남박사의 연락처는, Dr. Kang Nam Oh Religrous Studies, University of Regina, Reginan, Sask, Canada, S4S 0A2

◆오강남박사의 저서 「길벗들의 대화」의 겉표지. 이 책은 총329페이지와 크기는 12.5Cm×22.5Cm이다.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모국으로 가시는 길—KAL

알찬 서비스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읍니다.

대한항공은 주23회의 편리한 스케쥴로 가장 빠르게 미국과 한국을 직결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에서 주11편, 뉴욕에서 주4편, 호놀루루에서 주8편씩 서울로 직행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뿐입니다.

모국을 방문하실 때는 어느 항공사보다 편리한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서울

편명	출 발		도 착		경유지
KE011	월·수·토	13:00	화·목·일*	19:20	NONSTOP
KE015	화·목·금·일	22:00	목·토·일·화	06:20	앵커리지
KE001	화·목·토·일	08:40	수·금·일·월	20:40	호노루루·東京

뉴 욕➡서울

편명	출 발		도 착		경유지
KE007	화·목·금·일	23:00	목·토·일·화	06:50	앵커리지

호노루루➡서울

편명	출 발		도 착		경유지
KE050	월·수·금·일	00:40	화·목·토·월	06:30	NONSTOP
KE001	화·목·토·일	13:40	수·금·일·월	20:40	東京

* 모든 시간은 현지시간 임
* 본 시간표는 정부인가 조건이며,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읍니다.

精誠을 다하는 우리의 날개

大韓航空

대한항공 Tel: (416)862-8250
390 BAY ST. SUITE 720

● 서울여행사 535-6004
● 제일여행사 535-2377
● 신세계여행사 536-2155
● 한국여행사 531-4607

독자 페이지

아들의 이민

김정원 (몬트리얼 거주)

푸른 동산의 미련인듯, 겨울날씨답지않게 따스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이민생활의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모두들 지칠줄 모르고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민족의 굳건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땅에 들어서기까지엔 수많은 날들을 목적 위해 치러야 했던 과정은 한이 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여왔던 것이다.

이런 고비를 겪고 얻어진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결코 헤어져 있는 가족들이 아닐까?

모두들 어떻게 하면 좀더 쉬운 방법으로 내 가족을 데려다 이땅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마다의 부르짖음과 갈망으로 오늘의 가정을 이루었고, 나아가 이 이민사회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나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아이들과의 즐거움은 더없는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2년이라는 긴 날을 나는 아이들과 헤어져 살았고, 그간의 서로의 역경은 말로 다할 수 없다.

큰아들애 나이는 이민의 한계를 넘어 방문으로 오게 되었고, 딸애는 무사히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 결국 아들아이는 어머니인 나의 가게에 고용이 되어 수속은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 팔월초 인터뷰와 신체검사를 끝냄으로써 이제 남은 것은 영주권을 받는 최종단계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12월30일이 연장된 비자의 기한이어서 12월22일 아침 아들 혼자 비자를 연기하기 위해 이민국을 찾았다. 그런데 비자연기를 받지 못하고, 난데없는 12월30일까지 캐나다를 떠나라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돌아왔다. 왜 이곳을 떠나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머니인 내 가게에 고용이 되어 이제 얼마 안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입장이 아닌가! 그런데 나가달라는 그 통지서는 무슨 뜻인가?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이튿날 이민국을 찾았을때 다 만들어진 그 서류는 항의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은채 나에게 어려운 현실을 만들어 주었다.

일을 했다는 사실이다. 왜 어머니 가게에 나와 있었으며, 또 왜 일을 했는가?

못하게 되어있는 일을 해서 추방한다는 것이다. 일을 못한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법규는 내집 아닌 다른 곳에서의 일을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실에 분노마저 금할 수 없었다. 우선 이 법규를 잘 이해 못한 나의 부족함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이 모든 책임은 역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말하는대로 따르는 수밖엔 없어서 결국 아들애는 일이 있는지 3일만에 미국으로 떠나고 말았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의 법규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민국의 그러한 처사는 어디까지에 한계를 두었는가? 즉 부모와 자식간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도울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해주지 않는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이민자를 위해 좀더 구체적인 설명과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행한 것은 삼국에서 무사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데 우선 안심하는 바이다.

미문화원 방화사건

박 찬 도

인간의 선악 평가는 단순히 선악행위만 보고 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행을 하였지만 악인일 수 있고, 악행을 하였지만 선인일수 있다. 특수한 사정에따라 예외적 사건은 많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체로 선인은 선행을 평생을 통해 많이 하고, 악행을 적게 하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 사람평가는 특정행위만 가지고 단정할 수 없는 일이고, 그 행위를 참고로하여 신중히 다각도로 분석하여 선·악 평가를 해 볼수 있는 것이다.

미문화원방화사건은 단순히 사건만을 보면, 무질서적 파괴적 난폭행위이다. 즉 악행이다. 그러니까 일단나쁘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국민대중을 고통받게 하는 독재가 싫었고, 악한 독재권력을 옹호하는 미국이 몹씨 싫고 미워서 응징하려는 선으로서 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양심적인 좋은 사람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이 그 사람을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평가할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선인인가? 악인인가?

한국 독재가 미국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평가자)는 그 사람의 행위를 "양심의 발로"라고 정당화시킬 것이며, 한국인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보는 사람(평자자)은 그 사람 행위를 "무질서적 악행"이라고 볼 것이다.

또 한국독재에 대해 미국책임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한국인 자신의 책임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비중의 큰 만큼 양심적이라고 평가할 것이며, 한국인자신들의 책임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미국의 책임을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비중의 크게 느끼는 만큼, 비양심적인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될것이다.

이와같이 한국독재 생성 원인의 비중적 요소평가에 따라, 방화자의 선악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다.

내가 보는 관점으로는 한국의 독재는 미국의 한국정부 지지의 영향이 적고, 다른 모든 국내외적 상황의 영향도 매우 적다. 심지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존재치 않고 한국에 민주주의가될 제반상황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독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독재가 존속하는 가장 큰 근본이유는 한국인들의 독재생리이다. 즉 남용, 위축생리인 것이다.

남용생리로 강자가 되면 독재하고프고, 약자가되면 위축생리로 독재에 방심하고픈데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한 한국 국민의 독재생리로 이루어지는 독재를 미국에 탓을 돌리고 방화까지 하는 일은 우리의 약점을 남에게 책임전가하는 과욕자의 비겁한 심리현상이다.

미국의 한국독재권력 옹호의 책임의 비중은 독재지속 원인의 5%이내로 본다. 그것을 95%이상으로 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가 친독재자이든 반독재자이든, 위축적 사대주의및 남용적과 반발심리라는 독재인간 심리의 표출상태인 것이다.

바로 그러한 독재인간의 교육적 남용심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독재가 한국에서 지속되는 것이다.

달리말하면 미국을 과히 비난하고 방화범을 과히 두둔하는 바로 그 생각이 독재에 과히 빌붙는(혹간 과히 공격되는)사대주의 사상으로서 독재를 만드는 사람이란 것이다. 〈우리는 그런행위를 반독재활동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같은 관점에서 미문화원방화사건은 잘못된 독재내물(과욕에 의한 과분노, 과반발)이 저지른 것이고, 저지른 개인을 옹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독재마음을 가져서 그리 생각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미문화원 방화라는 과욕적 반발·반응행위 진상은 마음의 비양심을 뜻한다. 공정한 사람의 선악 평가능력을 잃은것, 즉 조금 나쁜것도 많이 나쁘다고 함부로 이해하게 되는 위험한 태도를 말한다.

그런 비양심이 양심으로 생각키우는 비양심의 다수 한국인의 마음이 또한 문제이다.

하나의 사람을 내맘에 입장을 바꾸어 이해할 수 있고, 얼마의 깊이란 선악의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 비과욕의 인격자가 먼저되어야 하겠다.

덮어놓고 "불러와서 화났으니 너 나쁜놈"(나 정당함)이라는 식의 미개한 독재생태에서는 이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

한마디로 한국독제의 책임을 290%가 한국인 자신들의 책임에 있다. 그리고 미국은 반독재의 큰 힘을 전세계에서 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 민주화를 바래서 미국을 혐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자국에 독재를 만들어가는 사람밖에 아니다.

그 마음은 남용, 위축 마음으로서 독제제도 요소이기 때문이다.

모국어교육

김 준 순

멀리 모국을 떠나 외국에 이민와서도 모국의 문화와 모국어인 한글을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참뜻이라 생각한다.

외국에서 오래 살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 해도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절대로 외국인은 아니다. 이곳 캐나다의 예를 들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섞여 살고 있는데, 그중에 동양으로부터 이민온 중국인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처음으로 철로가 개통될때부터 노동자로 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120여년이 지났는데, 경제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잡고, 후손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쳐 일상생활 용어로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교포들은 겨우 10여년의 이민사를 가지고 있으나 타민족에 뒤지지 않고, 각계각층에서 괄목할만한 위치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포들은 그로서리가게를 경영하고 있는데, 토론토내 전체 구멍가게의 반수 이상이 우리 한국인이다.

제2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교민전체가 중요사업의 하나로 꼽고있는 특지가들로 구성된 교육연구회가 조직되어 있고, 40여교회내에도 한글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지역별로 토론토 시내만도 10여개 이상의 한글학교가 있는 바 제일 먼저 개교된 씨알한국인학교는 1974년에 시작하여 명년이면 개교 10년인데 매주 토요일 오전중에는 한글지도를 하고, 오후에는 예능과목(음악, 무용, 미술, 태권도)을 희망자에 한하여 지도한다.

다음 천주교내에 설치된 한맘한글학교(교장 장필규씨)의 경우는 매주 주일을 이용하여 초급반부터 상급반까지 200여명의 학생에게 한글을 가르친다. Y한글학교등 그외의 학교들은 토요일이 대부분이고 노스욕한글학교의 경우는 수요일 저녁에 2시간씩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교사들의 보수를 지급해주고 있다. 이나라의 정책은 복합문화주의를 장려하고 있고, 인종차별도 없도록 계몽하고 있다.

10월9일 한글날을 기하여 한가정소년문화협회(회장 이인용)에서는 어린이를 상대로 매년 "우리말 잘하기 대회"와 웅변대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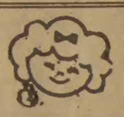
1981년부터 캐나다한인총연합회(회장 오기송 박사)에서는 10월3일 개천절을 "한인의 날"로 정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있다.

그중에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토론토한인회관 내에 설치한 「무궁화문고」에서 어린이와 성인들의 작품을 모아서 문집 "무궁화"를 발행하기로 했다.

(전교육자 경기도 동인국민학교장)

연상만 건축설계 사무실
SANG 'MAN YOUN ARCHITECT
161 EGLINTON AVE. E. SUITE 702
484-4895 · 484-6110(B), 492-7472(R)

존경하는 신문사님들께



특히 "M신문의 회초리"님께

토론토에 산지 오래되었지만, 소인은 한인사회에 나와 일해 본적도 없고, 능력도 없는 지극히 무식한 사람이올씨다. 허나, 돌아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감성과 뒷전에서나마 한인사회에 무척이나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교민의 한 사람이올씨다.

말씀드리고자함은 다름 아닌 신문사에 대한 근래 항간에 떠도는 얘기이니, 웬놈의 신문사가 이리 많아 야단인지요.

4개의 신문도 지랄같이 많은 판국에, L씨의 동아일보얘기가 작년부터 계속되어 앞으로 5개가 될판이니 신문비즈네스가 정말 잘되어 그런건지, 이 불경기에 소인은 정말 어리둥절합니다그려. 「금력있는 L씨가 작년 한국일보사와의 마찰후 몇몇사람을 모아 감정적인 이유로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신문은 M신문과 공동으로 한다는 낙착이 이루어졌다가 또 결렬됐다」는등 줄임없는 소문이 항간에 떠돌고 있으니 속시원하게 언제쯤 내용을 알게 될는지 모르겠소이다.

허긴, 남의 신문사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무슨 관계가 있으며, 할일없이 남의 일에 관심을 갖겠소마는 민중의 목탁이라는 신문사의 하는 일들이, 어떤때는 꼴이나 맘에 안들어 하는 얘기외다.

특히 M신문의 「회초리」난을 보십시다.

사회의 공기라는 신문이 개인적인 감정을 공적으로 취급하여 자기기분에 맞지 않으면 깐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조심을 해야겠소이다. 최근에도 H씨, P씨가 당했으니 내 울컥이는 심정은 이 두 사람을 잘 안다는 사실보다는 두사람 다 선량하고 교민사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했지, M신문의 「회초리」감이 전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소이다.

더구나 P씨는 과거 10여년간 교민사회 대부분의 오락사회를 도맡아, 웃음을 안겨주고 그가 명사회자라는 것은 대개 아시는 분들은 인정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오리까.

소인은 이번 실험행사에 참가를 못하여, P씨의 실수를 알지 못하나, 만약 있었다면 급한 김에 예정에도 없는 P씨에게 사회를 갑자기 맡겨 실수가 튀어나왔는지 혹시 모르겠소이다.

이유야 어떻든 그간 교민사회에 오락프로나 쇼프로의 사회자로서 공로를 갖고 있는 P씨에게 M신문에선 「회초리」로서 다스리다니 참으로 신문다운 신문이로소이다그려.

언제 임자 잘 만나면 회초리대신 몽둥이 찜질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 두는 것이 좋을텐데요.

어디 그렇지 않겠소이까.

스카브로 홍

波瀾萬丈「이철수드라머」②

억울한 獄살이 「10년教訓」과 석방후의 問題點

이철수씨의 케이스는 한국인의 미국이민생활이 낳은 비극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있다. 학교정학처분-가출-차이나타운갱 살인누명-사형선고-무죄-석방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마다 실마리를 풀어왔다. 다음은 이철수씨의 어머니 이미례씨가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위해」자신의 숨겼던 심경을 처음으로 고백한 내용이다. 본보취재반은 지난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이철수씨의 어머니와 만나 특별인터뷰를 가졌다. 〈편집자주〉

子女둔 부모들에 남기고 싶은말

어머니는 告白한다

나는 언젠가는 자녀들을 갖고있는 교포들을 위해 『철수가 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싶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은 교포들 누구에게나 일어날수있는 케이스이며 특히 갓 이민온 분들이 자녀교육에 유의할점이 무엇인가를 거울삼을수 있기 때문이다.

철수가 트레이시교도소에서 밧줄에 몸이 묶이고 수갑을 찬채 법정으로 나오는 모습을 처음 내가 보았을때 나는 그자리에서 기절했다. 눈을 떠보니 법정마샬이 나를 부축하고 손에 물그릇을 들고있었다. 그후 철수의 포승묶인 모습은 항상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철수는 12세때 미국에왔다. 나는 철수보다 먼저 미국에 왔기 때문에 철수와 나는 떨어져 있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었다. 철수를 미국에만 데려오면 모든것이 해결될줄 알았던 나의 생각이 큰 잘못이었다. 5년이나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사이 철수는 모정에서 멀어져 버렸다.

내가 한국에 나가 철수의 도미수속을 밟아 철수가 미국에왔을때는 (64년)어린애가 아니었다.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12세의 청소년이었다.

"신사복은 내평생 처음" 이철수씨가 29일 하오 산호세에 있는 백화점에 들러 신사복을 입어보고 있다. (오른쪽은 어머니 이미례씨). 그는 신사복을 입자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참, 기분이 이상한데…』라고 말하기도. 〈변홍진기자 찍음〉

무조건 데려오면 만사가 해결되는줄 알았는데
5년떨어져있다 美國데려 왔을땐 母情못느끼고
生計위해 밤·낮일…12세사춘기돌보지못한것이…
英語못해 놀림감…학교가기 싫어하고 빗나가
교감에 대들어 정신이상자 낙인 少年院으로

그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다. 학교에 보내면 놀림감이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학교가기를 싫어했다. 학교가 지옥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처음에는 으레히 저러다가 어떻게 적응이 되겠지』하고 생계유지에만 정신을 쏟았다. 철수와 철수누이동생(매리)을 부양하기에는 여자 혼자 힘으로 너무나 벅찼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커피숍에서 접시를 닦는등 2개 직장을 왔다갔다했다. 차도 없었다. 버스를 몇번이나 갈아타자니 그 피로움이 말이 아니었다. 철수와 매리는 집에서 보호자도 없이 놀게했다. 그당시만 해도 나는 자녀교육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킬수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며 그저 돈버는데만 신경을 쏟았다.

학교에서의 철수말썽은 계속 되었다. 그는 점심시간에 뒤에 서있는 아이가 머리를 쥐어박고 숨자 쫓아가서 그아이를 때렸다. 교감이 둘을 불러들여 설명을 들었으나 철수는 영어를 못해 자기자신을 변명할수가 없었다. 교감인 철수보고 잘못했다고 꾸지람하자 철수는 교감에게도 대들었다. 학교에서는 철수를 정신이상자로 취급, 경찰을 불러 소년원에 보냈다. 나는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았다. 나자신도 영어가 부족해 설명을 충분히 할수가 없었다. 그때는 한국인 소셜워커도 없어 도움을 구할수가 없었다. 미국이민생활은 우리가족에게 지겹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계속〉

이대환 不動産

★드라이브 닌
▲도넛숍 : 주매상 $8,500, 렌트 $2,900, 아스킹 $320,000
▲도넛숍 : 주매상 $9,500, 렌트 $3,500, 아스킹 $319,000
★Mall안에 있는 Fast Food
주매상 $10,000, 아스킹 $320,000
★아담한 Take Out 식당(6일)
주매상 $6,500, 렌트 $500, 아스킹 $160,000
★Mall안에 있는 Gift숍(크리스탈전문)
년수입 $500,000, 아스킹 $149,000
★Variety Store
주매상 $11,000, 리스 5+5년가능, 아스킹 $139,000
★Variety Store
주매상 $15,000, 리스 6+10 아스킹 $2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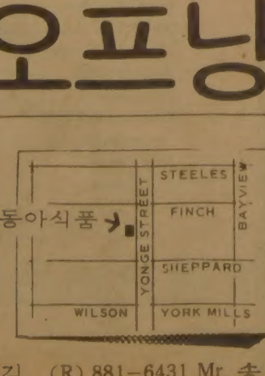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1251
535-1260
R) 536-4250
세일즈맨 신영하

동아식품
그랜드 오프닝

저희 두 사람이 뜻과 정성을 합하여 교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장소에 식품점을 개점하게 되었읍니다.

5월초에 개점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송종호 · 김홍배 드림



5568 YONGE ST. (R) 663-1339 Mr. 김 (R) 881-6431 Mr. 송

컴퓨터-싸이언스코스
학 생 모 집
(국내·외)

저희 Kanata학교는 Minis, Micros and Main frame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사이언스 코스를 가르칩니다.

DIPLOMA IN BUSINESS COMPUTER PROGRAMMING AND SYSTEMES ANALYSIS.

우리들의 집중적인 6개월 프로그램을 COBOL, RPGII, BASIC, ACCOUNTING AND SYSTEMS DESIGN을 훈련함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매 새학급은 5주마다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직장도 알선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직장 알선율을 알아보십시요.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시면 960-8708 또는 장거리 무료전화 1-800-387-12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국학생, 국내학생 환영함.

Kanata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nc.
10 St.Mary Street,
5th Floor, Toronto, Ontario
Canada M4Y 1P9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 LINE)
533-8344

커피빈 파운드당 3불이하선

도나스업 회원에 희소식

종래의 고정관념인 실협의 코너·스토어 업종 이외의 타업종 회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수 있는 최초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나스업을 하시는 회원들에게도 큰 돈을 절약할 수 있는 희소식이 있다.

주종품목인 커피 빈의 현재 시중도매가격 lb.당 $3.40에서 $3.75선이 협회의 협상에 의하여 $3이하의 가격으로 협상될 것이며 그러므로 도나스업이나 요식업을 하시는 회원들에게는 주평균 구매량 100Lbs.로 환산한다면 년 $3,000이상의 과외수입을 올리게 될 것 같다.

지난 3개월간 협회의 차회장과 강준남 도나스분과위원장은 커피 빈의 가격인하를 위하여 온타리오내의 대표적인 공급회사인 Club Coffee, Anthost, Kanta, Good Host등과 협상을 전개하여 왔었다.

4일(월) 불루아소재 클링턴·하우스에서 최종의사 결정을 위하여 소집한 강태영, 유승효, 최장복, 전문식, 호민식씨등 도나스업계의 회원(37명중) 18명은 가격이나 협상을 위한 최종 전략을 토의하였으며, 상호단결과 행동통일을 위한 전전하고 고무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의 참석자중 이기천 회원은 "서로의 작은 실리에 치우치지말고 실협의 큰 지붕밑에 단결함으로서 우리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데 뭉치자", 황용성 회원은 "협회의 협상이 여하히 결정되면 이의없이 따르겠다. 그러나 서두르지 말고 최하의 가격과 최고의 품질을 확보키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우희정 회원은 "도나스업에 종사하는 우리 협회원은 비록 40업소 미만이지만 실협의 1,000여 코너스토아 회원들의 뒷받침과 그들의 구매력을 십분 이용한다면 커피회사들도 우리들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다고 본다", 정영식 회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단결뿐이다. 협회의 협상결과에 조용히 따르겠다"고 하였다.

3시간 이상에 걸쳐 진행되었던 이날의 회의는 모든 의사결정을 협회에 위임하였으며 차회장과 강위원장은 좋은 결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최종협상은 내주중으로 결정될것이며 커피 빈의 질은 컨추리·스타일 도나스나 도넛·캐슬등의 체인숍의 질과 동일할 것이며 가격은 3불 미만이 될것이다. 아직도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교포업자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가입하여 좋은 혜택을 받기 바란다.

이 협상을 위하여 특히 이사회의 강위원장은 대단한 수고를 하였다.

경품당첨자

속히 찾아가도록

협회에서는 「실협의 밤」 당일 시간관계로 복권추첨을 완료하지 못하고 나머지 추첨을 3월28일 실협사무실에서 언론계 대표의 참석하에 추가실시하고 전체 당첨번호를 지난주 실협뉴스를 통하여 공포하였다.

현품의 보관관계상 당첨되신 분은 조속히 협회사무실에서 찾아가도록 협조하여주기 바란다.

당첨자는 당첨된 티켓을 가지고 협회사무실로 오면 현품 또는 소정의 교환권과 교환해준다.

김태진 전이사장

모국경제단체 방문후 귀국

「상공인의 날」 행사 참석차 모국을 방문한 김태진 전이사장(현재 자문위원)은 실업인협회의 대표자격으로 모국의 경제 각 계인사들을 예방하고 3월25일 귀국했다.

급성장을 하고 있는 한인 실업인협회가 앞으로 모국을 위하여 기여하고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맺을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김 전이사장은 경제인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인협회등을 방문하고 간담을 하였는데, 현단계에서는 해외의 경제단체와 결연을 체결하는 씨스템이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실효는 거두지 못했으나,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생기는 경우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와 경제협력관계를 맺을 것을 확약받고 돌아왔다.

김 전이사장은 관계 경제단체에 실협의 규모와 활동현황을 소개하여 깊은 감명을 주고 돌아왔다고 방문성과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경품당첨자

칼라TV에 이은숙회원

3월분 경품추첨에 당첨된 회원은 아래와 같다. 당첨자 8명에게 싯가 $47.95의 밧데리가용 면도기가 수여되고 1/4분기 특등상 당첨자인 All Mart Milk Store의 이은숙 회원에게는 Panasonic 11" Colour TV 1대가 수여된다.

한편 2/4분기인 4, 5, 6월의 경품은 싯가 $34.95의 포켓용 Solar계 산기이고 6월말의 특등에는 싯가 $649.95의 Panasonic 마이크로·오븐이 걸려있다.

◉특등: All Mart Milk Store/이은숙

◉당첨: Green Mount Fruit Mart/박시환, Town Milk Convenience/안규정, Royal Convenience/최상철, Midland Jug Milk/이광섭, Park Lawn Grocery/최정도, Kim's Variety/김칠웅, Barton Variety/강환규, Country Milk/이재택.

벡커가격경쟁 피해회원

4월11일(월) 협회로

「실협뉴스」를 통하여 벡커의 연초가격인하로 인한 피해회원의 신고를 받은바 있거니와, 영향을 받는 회원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협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관계회원들의 의견을 종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오는 4월11일(월) 오후 4시30분에 협회사무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L회원은 "가뜩이나 경제침체로 매상이 시원치 않은데다가 울며겨자먹기로 이윤없이 옆의 벡커와 같은 가격으로 담배를 팔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한탄하는가 하면 P회원은 "내주부터 담배값이 30센트씩 인상되는데 과연 벡커의 담배값이 어떻게 될것인지 궁금하다"고 걱정하고 또 다른 P회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협회원 상점과 대결해보자고 나오는가 본데, 하루속히 협동조합등 강력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한데 뭉쳐서 이들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겠다"고 흥분하면서 "1,000개의 회원이 합심하면 머지않아 우리가 이기는 날이 올것이라"고 희망하면서 협회만 믿고 참고 견디어볼 각오라고 말하였다.

협회에서는 4월11일의 회의에서 피해회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전력을 다할 각오라고 차회장은 언급하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피해회원이 시간을 할애하여 이 모임에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구독신청·광고
533-2361

실협 전총무

최복기씨 윈저이사

제5대 이형인 회장과 더불어 실협의 총무로서 수고하였던 최복기 전총무는 4월 초순에 서부 온타리오의 윈저(Windsor)시로 이주할 것을 알려왔다.

지난주 협회 사무실로 차회장을 방문한 최 전총무는 그간 부족한 사람을 아껴주신 많은 친지 협회원에게 감사하며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하였다.

◆최복기씨

「스타」지 협회보도후 비지네스 오파 쇄도

지난 3월20일 「썬데이·스타」에 실협에 관한 전면 소개기사가 나간 이후, 각계 각층의 업자들의 비지네스 관계 체결을 위한 면접요청이 연일 쇄도하여 협회 사무실을 바쁘게 하고 있다.

컨비니언스 스토아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관계되는 업자뿐 아니라, 경보장치, 도난방지용 거울등 각종 장비에 이르기까지 소매상점에 관계되는 많은 업자들의 약속 요청이 와서, 어디서 협회를 찾았느냐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스타」지의 비지네스·섹션 기사를 든다.

협회 회장단은 한시간 간격으로 연일 약속되어 있는 면접에 당분간 빠쁜 스케줄을 보내야 할것으로 예상된다.

성장하는 우리 실협
성공하는 나의 사업

K.B.A. 교환센터

◆Hardware Stock이 많이 있음. 원하는 물품만 소량이라도 염가로 제공함.(669-6438 Mr. 염)

◆Soft Serve Ice Cream Machine 원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884-5458 Mr. 하)

◆Bulk Cabinet 6 feet(Scoup Ice Cream Cabinet) 구함.(276-3266 김요현)

쳇바퀴 돌리기

회원 조정대

.더러는 몽롱해지는 재미로
눈 내려감고 다람쥐는
쳇바퀴를 돌린다지만

별반 잔재미 없는 하고 많은 날
가게와 집 사이를 맴돌다 보면
마침내 곤히 풀리는 우리들의 육신

이제 이민생활에도 길들어
타는 저녁놀에 마음 비워놓고
날듯이 기쁜 마음으로 살만도 한데

어디 살면 간간히 서운한 일 없을라
가다 보면 산도 넘고 강도 앞서거니
그래서 한 세상 사는 것 다 아픔인 걸

친구야! 요즘은 어떠냐?
덥석 너의 손을 잡고 잔을 채우면
문득 만나지는 옛날의 뒷동산.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급.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상업건물및
주택 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964-6834(B)
226-0375(R)
643 Yonge St (3rd fl)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식회사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三國志

글·高羽榮·그림 600

사과의 말씀

실협 1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반면에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희망함으로서 일부 회원들에게 입장권 문제로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내에서 가장 큰 장소를 정하고, 최대 수용인원에 200명이나 테블을 증가하고, 이사와 임원 부부는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장권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부 회원에게 티켓을 드릴 수 없었음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하튼 준비에 임한 당사자들로서는 잔치에 임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음에 지상을 통하여 재삼 사과를 올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3년 4월 4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회장 차선겸

Welcome to K.B.A.

금주의 신입회원

Pizza Delight Restaurat	김현승	O' Mr. Cleaner	구문자
Bay Ridge Market	임방식	Pro Insurance Brokerage Inc.	강학수
Donut City	설창근	Briarcrest Milk Store	정인석
Elegance Chinchilla Ranch	이경태	Jane Finch Smoke & Gift	김문희
Donut Castle	최창림	Pik Kwik	권용철
Family Shoe Repair	강기영	Sameer Tuck Shop	임의상
81 Greenhill Garden Maintenance	최명수	St.Dennis Tuck Shop	장 용
T. J. Milk & Variety	차영권	T. D. Tuck Shop	최성국
Town Grocery	서석주	A. D. Mini Mart	이윤화
Mac's Milk	윤길웅	Jac's Milk	이영대
Queensway Variety	신성훈	People's Variety	정유홍
George Milk	이정옥	Ruth's Variety	장인환
Ruth Variety	장인환	Allen Garden Supermarket	이형철
J. B. Variety	박광우	St.Clair Discount	한병철
L & G Variety	양선환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감사의 말씀

지난 3월26일 하버카슬에서 개최된 실협10주년 기념행사를 대성황리에 마칠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내외귀빈여러분, 공급제조업자 제위 그리고 누구보다도 회원여러분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중에 상품전시 참관차, 오후4시부터 참석하여 주신 회원여러분의 협조를 감사드리고, 이로 인하여 협회의 구매력을 업자들에게 실증할 수 있었음을 치하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단체·기관·업체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의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이사, 임원 제위에게 우선 지상을 통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의 협회 발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983년 4월 4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회장 차선겸

打順바꾼 與野 진용 4월 國會가 前哨戰

要職개편후의 政局·11代後半 國會를 전망한다

政治部 座談

—지난29일 民正黨의 전당대회를 끝으로 民正·民韓·국민등 3黨이 새로운 진용개편을 끝냈고, 11代후반국회를 이끌어갈 院內人選까지 모두 끝나 이제는 출발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군요.

—30일 民正黨이 內定, 발표한 국회요직 人選결과를 보면 의장단이나 常委長의 얼굴들이 정치경험을 갖추고 있다는점에서 원만하고 성숙된 운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군요.

—상임위원장의 대부분이 初選으로 구성되었던 前半국회에 비하면 新정치인출신의 진출이 두렷하게 눈에 띄는게 특징입니다.

—의장단이나 常委長 人選에서 多選과 지역구출신위주로 했다는것은 그만큼 정치경험을 살려 원만한 운영을 해보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고 보니 初選들이 이끌어갔던 前半국회는 시행착오도 적지않았고 어딘가 불안했던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운영의 실무는 그들이맡고 있지만 방향타는 역시 각黨의 핵심간부들이 쥐고있기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전망입니다.

—民正黨은국회요직내정에이어 나머지 중간및 하부黨職에대한人選을 발표함으로써 4차에걸쳐要職人選시리즈를 모두 완료한셈이지요.

—31일 발표된 중간당직은사무차장 정책조정실장등 핵심멤버들은 예상대로 留任시킨반면 나머지 특별위원장, 정책위부의장,國策연구소임원, 부총무등은 지역구는 年功과 지역안배, 그리고입부전국구의원들을 기용하는것으로 구색을 갖추었지요.

—한마디로 국회는 지역구의원들이, 黨의 연구기능은 진능대표적인 전국구의원들을 우선 발탁한 셈이군요.

—이번 전당대회를통한 3黨의 黨體制정비는 오는4월로 11代국회가 후반2년을 출범하는 시점과도 軌를 같이하고있고 3黨의 새體制가 2년후에 있을 85년總選을 담당하게되는 黨의 骨格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있지요.

—하기야 民韓 국민당은 총재와 주요黨役者들이 거의 留任한 반면 民正黨은 대표가 바뀌었지만 그동안 黨을 이끌어온 體制가 지속되게됐다는 점에서 與黨의對話와 共存체제는 어느정도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民正黨의 경우 상당한 진통끝에 李載淳대표위원이 물러나고 대신 陳懿鍾정책위의장이들어선것은 역시 큰변화라고 할수있지요.

—그러나 신임 陳대표위원 평소 그의성격이나 정치경력등으로봐서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관여보다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역할을할것같고 실질적인 黨운영의키는 權翊鉉사무총장 李鍾贊총무에게 맡겨질것으로 보여지고있어 특별한 변화는 없을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위원의 기능내지 역할이란 측면에서 李前대표와 신임陳대표사이의 個性, 특히정치적스타일을 비교하는사람들이 많아요. 前者의 「어른」대우를 능동적으로 받으려는 강한 個性과 後者의 「어른」대우를 해주기를 그저바라는 비교적 수동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결코 이름만의 대표가 아니다』는 強辯에도 불구하고 陳대표를 간판으로하는 民正黨새체제가 과연 85년총선까지 갈수있겠느냐 한는데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는것같아요. 말하자면 일종의 過渡체제가 아닐까하는 분석들이 나오고있지요.

—지난번 黨職개편때도 유력하게 거론됐던 「權翊鉉대표—李鍾贊총장」案이 언제쯤 구체화되느냐하는 시기문제에 큰관심들이몰려있는것 같아요.

—앞으로 民正黨의 권력구조를 眺望하기위해서는 이번全黨大會를 계기로 黨중심기구로 稼動될 中執委상임위를 눈여겨 봐야할것 같습니다. 여기엔 지난번의 경우 13명의 당직자전원이 당연직中執委員이었던 경우와는 달리 이번의 中執委상임위는 당직자가운데서도 5役만 자동당연직이 되고 나머지 5人은 재가 지명하는 中執委員등 10人으로 구성하게되어있어요.

—따라서 10人의 中執委상임위가 앞으로 모든 주요당무를 담당하는 최고의 議決·執行기구가 되리라는 예상입니다.

—民正黨과는 달리 民韓黨은柳致松총재가 유임되고 그동안 柳총재에 맞서 黨權도전을 시도했던 黨內비판세력의 구심점인 辛相佑의원이 부총재로 롤백하고柳漢烈사무총장 林鍾基총무 金鉉圭정책위의장등 3役은 유임으로낙착되었는데 신선한 인상을 주지 못하는게 사실이지요.

—사실 民韓黨이 柳총재·辛부총재(創黨당시 사무총장)손에 成家하여 작년초 高在淸총무 韓英洙정책위의장등 3役이 물러나고 현재 유임된 3役체제로 바톤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의 辛부총재롤백은 한마디로 創黨體制의 환원이라고 압축할수있을것 같아요.

—民韓黨이 이처럼 「創黨體制로의 환원」을 할수밖에없었던가장큰 요인은 在野·舊野圈인사들과 脈을 통하고있는 辛부총재를 黨운영에 참여시킴으로써 언제부터불지모를 外風에 미리 免疫을 길러 解禁政局에 대처하고 또한 黨內비판세력도 약화시킬수있다는 柳총재의 「中庸韜略」의 하나로 해석될수있겠지요.

—따라서 民韓黨이 11代국회前半2년에 비해 後半2년도 큰궤도의 修正이나 뚜렷한 진로변화가 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黨3役의 유임으로 빚어졌던 국민당의 소위 「2·12」人事파동은 일단 순당직자들의 「8월31일까지…」라는 時限附 꼬리를 달아 일단 크게 길은 잡았지만 언제 再燃할지모르는 불씨는 內燃하고 있는셈이지요.

—국민당은 앞으로 당처를 제2라운드 당직개편을 앞두고 소속의원들이나 당원들사이에서 불안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선지 내달초 한달간의訪美후 귀국하게되는 金鍾哲총재의 「美國構想」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지난번 人事파동이 黨外作用이 있었다는 소위 「外風」是非에 致命傷을 입은 金총재가 이번만은 그의 소신대로 「누구나가 共感할수있는」새 라인업을 구축하게 되지않을까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 정당의 요직개편에 이어 11代국회 後半을 떠맡을 새 진용이 드러남에 따라 「정치의 先進化」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있다 (民正黨대표위원 離就任式이 끝난후 陳懿鍾신임대표 위원이 축하인사를 받고 있으며㊤ 民韓黨의 柳致松총재가 당직개편후 첫 당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8月末時限附당직이란 비록 현체제가 과도체제이긴하나 전부(정기국회)를 앞두고 어떻게 野戰사령관(총무)등을 갈수있겠느냐는 추측도 있긴합니다.

—국민당의 파동을 해결하는열쇠의 하나는 黨內비판세력의 리더인 李萬燮부총재에게 여하히명예로운 활애기회를 제공하느냐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3黨이 체제정비를 끝낸만큼 곧 대표회담을 비롯한 各黨간의 各級접촉이 예상됩니다. 먼저 대표회담의경우 與黨의 얼굴바꿈으로 운영방식이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陳民正黨대표가 취임후 밝혔듯이 대표회담이란 黨3役등이 풀수없는 難題가있을때 대표끼리혹은 領袖회담이 필요한것으로본다는논리는 大小문제를갖고 무조건 연다는式은 지양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됩니다.

—柳총장 李총무등 根幹骨格이 그대로 유지되고있는 民正黨으로서는 문제가 생길때마다 구태여 대표회담같은것을 열필요가있겠느냐는 판단인것같아요. 만약 있다면 단순한 분위기조성용이나 親善의 범주를 벗어나지않는 극히 의례적인 정도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점을 두고 李前대표와 陳새대표의 정치적성향차이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前者는 자기領域에 모든것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자세임에 비해 後者의 경우 매사를 모나지않게 하려는 자세와의 차이라는 겁니다.

—民韓黨의 柳致松총재도 표면상으로는 과거 갈등대를 탄적이 있는 陳대표의 등장을 환영하면서도 內心은 같은 黨代表로 생각하는데는 어딘가 未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는게 民韓黨내의 여론입니다. 陳대표의 역할과 권한의 한계성으로보아 과연 얼마나 얻어낼수있을것이냐는 생각을 하는것같습니다.

—따라서 『대표회담의 時代는 去하고 3役회담의時代가 來하리라』는 추측이 만발하고 있어요. 한편 陳의장이 代表로 승진됨에 起用된 鄭石謨정책위의장이 前任者의 조용했던 성품과는 달리 문제에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추구할것으로 보여 많은 기대를 하더군요.

—民正·民韓黨등은 또 이번全黨대회에서 政綱정책·綱領등을 대폭 손질, 85년 總選을 겨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民正黨의 경우 創黨초 서둘러 만들었던 것을 「先進祖國」창조란는 지표를 반영시키면서 黨이념—정강—기본정책을 일관화 한것이지요.

—25개 기본정책에는 새로이 의식개혁,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약, 선진조국창조 민족史觀등 創黨이후에 제기된 會議건을 포함했는데 특히 노인복지와 체육진흥이 눈에 띕니다.

—정치분야에서는 「깨끗한 정치풍토」항목을 살렸으나 내용은 「과거의 정치作態와 정치부패를 단절, 명랑한 정치풍토를 만든다」는 과거단정적 내용대신 책임정치·和合정치등 미래지향적으로 바꿨는데 이를 어느정도실천하느냐가 큰과제입니다. 또 노동정책의 경우 이상론이라는 논란끝에 「근로자의 이윤·자본참여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론 근로자의 경영참여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살렸읍니다.

—民韓黨의 경우 창당때와는 70%가 달라졌다는 설명입니다. 기본정책은 우선 제1의 목표를 「민주한국의 건설로잡고 비판정당, 정책정당,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정당이란는 구호를 내걸었지요.

—政綱수정을 담당했던 李潤基前정책연구실장은 時代의 흐름에 따라 진취적내용을 많이 도입했다고 자랑하더군요.

—정치분야에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반조성,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제도개선, 多黨制배격, 정치 被규제자의 전면解禁과 이들의 전폭迎入, 脫유엔 외교정책의 지양등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民韓黨이 중점을두는 것은 역시 정치부문이며 의회 민주주의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대통령 直選制, 비례대표제개선, 공명선거 보장등 선거제도개선, 地自制실시, 언론자유보장, 88년 집권을 위한 黨勢강화등을 들수 있읍니다.

—주요정당이 새陣容을 선보이게될 4월 임시국회도 눈앞에 다쳐오는데 이는 11대 2期이자 행정부와 정당의 相見禮를 겸하는데 뜻이 깊고 또 지난 정기국회이래, 올들어 첫국회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의미가 있읍니다. 改閣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모르나 어쨌든 정당과 국회의 새진용이 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기회입니다.

—이번 국회는 또 11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與野의 前哨戰的성격이 드러날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 야당이 擴出한 이슈도 많아 상당한 強度를 지닌 뜨거운 국회가 되리라는 관측들이지요.

85년 意識 목소리 높아질수도
民正 權-李라인 浮上여부變數

—예컨대 民韓黨은 「물가중의 물가」라고 주장하는 油價의 국내반영비율, 韓一合纖 金根祖이사에대한 경관의 폭행致死사건, 방만한 통화와 부동산투기등과 께 국회법등 政治議案에 대한 추궁, 그리고 引責공세가 병행될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당도 뒤질세라 지금까지 노출된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것 같아요.

—선거를 의식하고 民韓 국민당이 서로 선명경쟁을 벌일 가능성도있어 地自制나 선거제도개정등에서 보조를 맞추느냐 아니면 단독으로 추진하느냐는것도 관심사중의 하나가 되고있읍니다.

—民韓黨이 제1야당이라고 하지만 국민당도 만만치않다는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4월국회가 만만치않으리라는 예상입니다. 벌써부터 會期를 두고 신경전을 시작했어요. 林鍾基民韓黨총무는 法定최대한도인 30일을, 국민당은 25일을 주장하는데 民正黨은 가급적 짧게 잡아 院구성 幹事선임, 常委배정등으로 가볍게 넘어가려는 생각입니다.

—또 民韓黨은 정치議案등을 4월국회서 처리할수없다고 보고 5·6월께 한번 더 임시국회를 열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10월에 세계議會연맹(IPU)총회가 있기때문에 정기국회도 제대로 회기를 못채울 것으로보고 올해엔 임시국회의 法定會期 60일을 모두 활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2년도 채 남지않은 12대總選을 앞두고 이번 4월 임시국회는 과거 어느때보다 야당의 공세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解禁者측도 야당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력의 눈초리인것도 사실이구요. 그점은 특히 解禁者와 상충되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에게 더 절박하게 느껴지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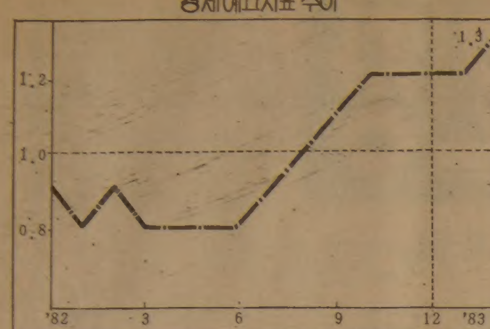
—3黨총무들은 작년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 국회법은 4월말까지, 地自制는 6월말까지 중간결론을 낸다고 합의했읍니다. 합의당시 民韓黨내에서는 『民正黨이 그냥 넘기려는 高度한 술책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으나 어쨌든 현재까지는 뚜렷한 전망이 없읍니다.

—民韓黨으로 볼때 뭔가 보장이 없을때 순순히 넘어가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보이지만 民正黨에서는 『왜 아까운 카드를 벌써부터 써먹느냐』는 말도 있어 地自制가 12대총선 公約으로 나오지 않느냐는 추측도 있어요.

—작년에도 宜寧사건으로 눈코뜰새 없었는데 4월임시국회가 열리면 밤깨나 새워야겠군요.

【정리=盧雄煥·金永煥기자】

경제예고지표 추이



指數景氣는 꾸준한 회복세

企劃院、月間경제동향 보고

2월예고지표 넉달만에 上昇

"5·6월 가면 활발한 局面예상" 기업 投資 분위기 조성이 문제

계속해서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온 국내경기가 오는5~6월께부터는 좀더 활발한 국면을 보이게 될것 같다.

31일 경제기획원이발표한 월례경제동향보고자료에 의하면 4개월동안 꼼짝않고 제자리에 머물러있던 景氣豫告指標(WI)가 지난2월중 다시 움직이기시작, 전월 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景氣綜合指數(CI)도 선행지수가0.1%, 동행지수가 0.7%씩 각각 상승, 지난해3월이래 근1년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두개의 대표적인 경기지표인 CI(경제기획원 작성)와 WI(韓銀작성)의 움직임을보면 국내경기는 오랜기간 완만하고 꾸준하게 회복돼온 결과 지금 안심해도 좋을만한 상태에 도달해있는 셈이 된다.

경기의 이동방향을 나타내주는 CI는 1년가까이 계속된 상승세를 보여 경기가 꾸준히 회복돼 왔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최근의 경기상태 (경기국면)를 나타내주는WI는 1·3으로 「안정권」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WI는1·0이하가 불황, 2·0이상이 과열, 1·0~2·0 사이가 안정권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현재 1·3을 기록하고있는것은 안심해도좋을 만한 상태라고 할 수있다. 두개의 지표를보면 경기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고 앞으로 2~3개월 후인 5~6월께는 좀더 활기를띠게될것이라는 전망도 할 수있다.

그러나 지난 29일 全經聯이 제시한 대정부 의견서에도 나타난 것처럼 기업들을 사이에서는 아직 투자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不況感이 완전히 가셔지지는 않고 있다.

指數景氣와 實感景氣의 이같은괴리현상은 최근의 경기동향이 나타내고 있는 두드러진 특색의하나다. 돈이 흥청거리고 부동산투기는 열을 뿜는데 기업들의 투자활동은 여전히 냉각돼 있다. 이날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2월중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대비 51·4%나 늘어났다. 특히 주거용건축허가면적은 부동산열기를 반영하 듯 무려 1백20%나 증가했다. 이같은 건축호경기 속에서도 기업투자활동과 관련이 있는 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은 6·1%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돈이 흥청거린다는것은 지표상으로 잘 나타나고있다. 총통화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4·6%, 통화는 46·8%로 나타났다. 올들어 강력한 금융긴축이 강조되고 있는데도 통화는 수축되는 기미가보이지않고있다.

과잉통화와 부동산투기로 의견상 경기가 활기를띠는것처럼 보이고있으나 실제생산활동과 관련된 경기동향은 여전히 활발치 못하다는것이 지표상으로 잘 나타나고있는 셈이다.

계속해서 회복신호를보여온 경기지표도 그내용을 따져보면 전전치 못한 요소가 많다. WI를 구성하는 18개의 개별지표중에서 활기를 보이고있는것은 통화와 건축관계지표가 대부분이다.

WI는 과열을 赤信號(2·0~3·0)상향선안정권을 赤黃(1·5~2·0)하향선안정권을 靑黃(1·0~1·5), 침체를 靑信號(1·0이하)로 각각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를 평균해서 나타내는 종합지표는 靑黃(1·3, 하향선 안정권) 신호등을 켜고 있지만 18개 개별지표들의 신호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① 赤信號를 켜고 있는 것이 예금통화 총통화 건축허가면적 ②赤黃신호가 총통화 화폐발행액 예금은행 대출금 제조업재고율지수 ③靑黃신호가 생산자수 기계수입 소매액지수 소비재생산출하지수 수입허가 원료수입 ④靑信號가 생산지수 수출 신용장내도로 나타나고 있다.

통화와 건축은 과열상태고 생산 수출은 침체다. 전체지표는 계속회복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그 회복을 주도해온 것은 투자나 생산 소비수출 같은 정상적이고 건전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통화의 과잉과 부동산투기 같은 건전치 못한 요소들인것이다.

특히 수출부진은 전전하고 생산적인 경기활성화를 가로막는 핵심적 장애요소가 되고있다. 지표상으로 보면 수출의 선행지표인 신용장내도액이 18개월 연속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증대없이는 성장도 불가능 한것이 우리의 경제 구조다. 수출이 늘지않으면 투자도 늘지않고 생산확대 고용증가도 기대할 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국제수지나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수출증대는 절박한 과제라고 할수있다. 내수기반을 다져서 수출없이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경제구조와 체질을 개선한다는 말도 있지만 경기지표의 움직임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입증해주고있다. 지금까지 경기가 회복돼 왔다는것도 통화증가와 건축활기 덕분이고 현재 경기가 회복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것도 통화와 부동산 덕분이다.

부동산투기로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억대 아파트가 생겨난 지금 경기를 위해서 부동산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없는 상황이 됐다. 통화도 올해 연말목표 16~18%(총통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증가하도록 내버려 둘수없는 형편이다. 한국은행은 상업어음 재할인비율을 31일자로 10%포인트, 다시 인하 (지난 24일에도 10%인하)했고 시중은행들은 대출창구를 바짝 죄는등 강력한 긴축을 하고 있다. 물가안정이 경제시책의 최우선 목표로되고 있고 올해와 내년의 물가목표가 2~3%선으로 제시되고 있는 마당에 부동산투기와 과잉통화를 못 본채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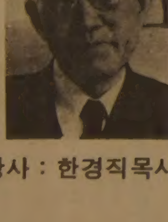
그렇다면 앞으로 건축활황과 통화를 대신해서 경기회복을 주도해줄수있는 요소가 무엇일까. 현재로서는 이들을 대신해 줄만한 것이아무것도 없다. 돈을 풀면 경기가 살고,돈을 조이면 경기가 죽는다는말이 그대로 적중하게 되는 셈이다.

과거의 경제시책은 항상 선택의 고민을 안고있었다. 『경기냐 물가냐』『물가가 좀 진정되면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고 물가가 너무 오르면 돈을 죄어 경기를 죽이는 식으로 왔다갔다하는 시책을 펴 왔던것이다.

인플레를 수반한 성장, 폐해와 부작용이 많았던 고도성장은 시책이 왔다갔다하는 사이에 쌓여지게 된 적폐라고 할수 있다. 안정과 성장을 양립시킬 수있는 새로운 시책이 제시되지 않는한 더이상의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과열상태인 건축활동과 통화를 규제하게 되면 경기는 주춤하거나 위축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부동산투기나 통화과잉을 수반하지 않는 경기회복은 수출증대나 투자분위기의 조성, 저축증대 같은데서 실마리가 풀려져 나와야 할 것이다.

【朴武기자】

한국선교100주년기념 준비연합성회



강사 : 한경직목사

할렐루야!

1984년도 한국선교100주년을 마지함에 앞서 카나다전역에 계신 전 교민이 성령으로 하나되어 새로운 선교의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사업회 총재로 수고하시는 한경직목사님을 모시고 뜻깊은 준비연합 성회를 개최하오니 다함께 참석하시어 큰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일시 • 1983년 4월29일(금), 30일(토), 5월1일(일) 오후7시30분

□장소 : 한인장로교회당(전화 : 762—1495)1183 DAVENPORT RD

한국선교100주년 토론토기념사업회

자문위원: 최사철, 양세주·서금찬, 여웅순·강인병, 배낙순·박경남, 김중환

대회장: 계화삼 목사

실행위원: 장세택·홍중표·박희민·안병한·정태진, 최상봉·이필주·김용출·윤수복

기념전도성회	학술강좌	청소년대회	기념사업
위원장 김재광	위원장 이상철	위원장 홍신웅	위원장 김용진
박춘하	조남유	이정준	차주성
조이식	김상호	김요한	김승환
조창환	김익선	유재신	김원정
정관일	홍순관	김경진	유환진
조성관	반병섭	김택규	서인구
권순국			
장은덕			

□주최 : 한국선교100주년기념성회준비위원회 □후원 : 토론토한인교역자회

대 회 장 : 계화삼 목사
부대회장 : 박희민 최상봉 목사
준비위원장 : 김재광목사
총 무 : 조이식목사
예비위원 : 조창환 목사
홍보위원 : 장은덕 목사 심상대
회 계 : 고성원,안정식
재정위원 : 구연원, 전택균, 이춘희, 조두현, 홍중표
안내위원 : 강대길, 이찬진
음악위원 : 박재훈, 권순국
동원위원 : 정관일, 조성관, 김희하
섭외위원 : 박춘하, 조진동
부녀위원 : 윤수복
청년위원 : 정 호 영,
학생위원 : John•리

새冷戰…美·蘇 초긴장

—「레이건 宇宙兵器」가 몰고온 攻防戰

양국首腦 상호非難 극렬

「質的 군비경쟁 時代」豫告

【워싱턴=李文熙 특파원】

지난 한달간 美·蘇간에는 최근 수년간 거의 들을 수없었던 가장 강경한 말들이 오고갔다.

그것은 어떻게보면 소련의 살무적인 선전과 비난을 미국이 그냥 보아넘기지않고 맞받아쳤다는데서 비롯된 것이긴했지만 그양상은 이것이 새로운 冷戰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이 아닌가하는 우려마저일게하는 것이었다.

레이건대통령은 일찍이 후보시절부터 對蘇강경론을 주창해온 사람이다. 그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취임후부터 정책에 옮겨졌고 지난해에도 말했듯이「평화란 힘의 산물이며 전쟁을 억지시킬수 있는 힘의보유가 평화를 보장할수있는 첩경」이라고 강조해왔다.

그의 이런 론은 어떻게 보면 한동안 미국의 세계에서의 위치에 회의를가졌던 미국인들에게 어느의미에서 호소력을 갖게하는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특히 그의 방대한 국방예산을 의회에 내놓으면서 보인 對蘇공격은 對蘇견제라는 호소력의 차원을 넘어 한가닥 불안마저 느끼게했던측면이 분명 있었고 여기서 美·蘇관계의 새로운위기에대한 우려를 낳게한 것이었다.

美국방성의 각종자료들은 분명 소련이 세계도처에서 현저히 전력증강을해온사실을 밝히고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를 알리고 비난한 미국의 자세가 전에비해 공개적이된 것이다.

레이건대통령은 지난3월8일 플로리다州의 올란도市에서 행한 연설에서소련을「악마들의제국」이라고 표현했고 민주당이 그의 국방예산을 깎으려들었을때 그것은 바로「기쁘다크렘린오셨네」나 마찬가지라고 역대대통령의 통상표현수준을 넘어 이를비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결정은 소련핵탄두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위해 미래의 우주병기를 개발 연구, 착수하겠다고 선언한 지난23일의 발표였다.

이발표가있자 소련은 통상 그들의 매체를 통해 미국을 비난해온 종래의 수법을 넘어 이번엔 레이건의 발표후 3일후인 지난26일 안드로포프가 직접 이에 언급, 레이건이 소련의 전력을 허위 날조하고 있으며 미국이야말로 지금 위험한 길을걷고있다고 협박을 가해왔다.

워싱턴의 소련전문가들은 소련지도부의 이런 미국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냉전시대종막이후 거의 들을수 없었던 전례없는것으로 그내용또한 전례없이 강경한 것이었다고보고있다.

이들은 이런 지난한달간의 노골화된 분위기가 초래할 결과는 결국 새로운 美·蘇군비경쟁이란 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

그리고 그 군비경쟁이란 양적인 차원을 떠나 질적인 경쟁이 될것이라고 주석을 달고있다. 이들은 이미 소련이 레이건대통령이 발표한우주병기연구에대해 상응한대비를하고있다는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유럽배치미사일문제에 있어서도 저속의 크루즈미사일보다는 고성능의 퍼싱Ⅱ미사일의 배치를 한사코 저지하려는 소련의 의도도 바로 퍼싱이 갖는 질적인 우수성때문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소련측으로보면 레이건은 어느미국대통령보다 불편한상대이다. 그것은 소련이 어느의미에서 오랫동안 엔조이해왔던 자유진영의 취약점을 레이건은 힘의준비로써 거부하려하고 있기때문이다.

관계전문가들에의하면소련은 어떤형태로든지 도전을 받고있다는 느낌을갖게될때 몇가지 규칙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 그것이 늘 군비증강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1940년대 미국이 첫 원자탄을 가졌을때가그랬고 1962년 쿠바미사일사태직후가 그런현상의 대표적인 예였다고 지적하고있다.

물론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때 적당한 협상을 시도치않은것도 아니다.

그대표적인것이 1953년 스탈린사후와 1970년대초 소위 데탕트시대가 그것이고 이기간에 모두 한국전의 종식, 동서독관계의 진전이 그실례로 나타났었다.

이런 전례때문에 레이건의 우주병기발표는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는 이것은 또다른 군비증강, 이를 위한 내부결속으로 나타날것으로 이들은 보고있다.

더우기 안드로포프는 브레즈네프와는 달리 그의위치가 군부의지지에 크게의존하고있기때문에 그가능성은 더 큰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은 최근 그로미코의 제1부수상승진, 소련로키트군사령관 톨라디미르·톨루브코등 장성4명의 승진을 이런 내부결속, 군부위치강화의 징조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일련의 상황에서 문제되는것은 소련의 국내문제, 즉 이미 어려움에 직면하고있는 소련의경제가 이런군비증강을 감당해낼수있을 것이냐는 문제이다.

이런점때문에 관계자들은 소련이 미국과의 타협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있으며 레이건은 이런 타협의 여지를 살려나가야할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민주당을 주축으로한국내여론과 美·蘇의 극한대결상황을 원치않는서부 유럽제국의 여론들이 바로 이런데근거하고있다.

즉 레이건대통령측이 이면저 양보내지 타협을 제시하라는것이다. 유럽에서 美·蘇가 서로핵미사일을 하나도 배치하지말자는 소위「영의선택」이 가장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이라고 믿고있는 레이건이 그수를상호줄이자고 제의하며 그의 零의 선택에 수정을가한 것도 이런 국내외적인여론에 뒷받침된 것이고 레이건측으로보면 그의 강경일변도에서 그나름의 후퇴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타협의 시에 소련측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듯이 소련측의 앞으로의 반응이 문제이다.

일부전문가들은소련의목표는 단1基의퍼싱Ⅱ배치도 그들에게 위협이된다는 주장이어서 감축이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양보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것이라는 점도 말하고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문제에 관한 진짜 타협내지협상은 오히려 금년말 첫미사일의 유럽배치 후에야 본격화될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물론 감축됐다하더라도 배치의 시작자체는 그간의 소련의 언동으로보아 새로운국면의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도있고 동시에 현상으로 유도할수있는 가능성도 모두있다고 이들은 보고있다.

어쨌든 관계자들의 일치된견해는 새로운「기국면으로 치닫고있는 지금의 美·蘇간의 긴장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현상의 방치는 양측의 군비증강만을 더하게할뿐아니라 새로운 냉전시대로 세계를 몰아넣을 위험이 있기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안드로포프

◇레 이 건

海外토픽

癌의 주요原因은 스트레스
긴장·노여움 억제하면發病

육체와정신의지나친「긴장」과 이 암의주요원인이라는 사실과 어떠한생활방식이 암을유발하는지를 밝혀주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곧 발표될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국제정신의과대학 학장인 안·바스티안스박사는 이는 암의예방과 치료에커다란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의학계는 긴장이라는것이 사람에게있어서 극히 주관적인 요인이며 이를 관찰하는데 오랜시일이 걸린다는 측정상의 어려움때문에그것이 암의원인인지를 규명할 포괄적인 연구를해오지 못했다고 설명.

바스티안스박사는 이날 그같은 새로운 측정기술의 자세한내용은 밝히지 않은채다만 이번 연구결과 사람의 흡연·음식물섭취·사회심리적태도등을 관찰「그가 암에 걸릴확률을 90%이상정확히 진단할수있다고 주장했다.【UPI】

레이건 稅務담당변호사 아들 체포
20代로 어머니殺害…동기 안밝혀져

레이건美대통령의세무담당 변호사 로이·D·밀러씨(53)의 아들이 25일 모친살해 혐의로 체포됐다고 경찰이발표.

마이클·데이비드·밀러(20)라는 이 청년은 이날 체포된 후 로스앤젤레스지안당국의 살인담당수사관들로부터 심문을 받았으나 아직 살인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밀러변호사는 자신이 로스앤젤레스시 남부 40㎞쯤에위치한 자택현관에 들어서는순간 아내의 피묻은 안경을 발견, 이름을 불렀으나 아무런대답이 없자 경찰에 신고했다는것.【AP】

人形제작 중지호소
★모나코國王 美법원에 소송

레이니에 모나코국왕은 최근 한 인형제조업체를 상대로 자신과 최근에 사망한 故그레이스왕비를 모델로 만든 인형의 제작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뉴욕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레이니에국왕은 자신과 3명의 자녀이름으로 제기한 소장에서 뉴욕주 롱아일랜드시 소재 돌스파트社가 그같은인형의 제조를 중지해달라는요구를 받아들이지않아 할수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지금까지의 인형판매이익금을 그들에게 지불하고 모나코왕가의 명예를 해친 댓가로 법원이 결정하는 손해배상금도 아울러 변상하라고 요구했다.【聯】

바웬사부인에 稅金
★2년전 선물받은차에부과

폴란드세무당국은해체된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의부인 다누타여사가 지난81년 독일의 한 단체로부터 선물로 받은 폴크스바겐미니버스에 대해 뒤늦게 2천7백달러의 세금과벌금을추가징수.

바웬사의 한 대변인은 바웬사와 그의부인 다누타가25일 그다니스크세무서에 소환되어 자유노조지도자로서 받은 봉급·선물·상금·예금좌등에 관해 따로 조사를 받았으며 다누타가 그동안 사용했던 미니버스에대해 세금과 함께 신고를 늦춘이유로 벌금까지 부과했다고 말했다.【聯】

히말라야 파괴심해
★관광객벌목·쓰레기버려

서방에서온 관광객들로 히말라야산맥의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고 한 산악단체가 25일 경고.

西獨산악연맹과 히말라야 주변 산악국가대표들에 따르면 관광객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땔감으로 나무를 베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사례가 늘어 이지역의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것.

이들은 관광객들로 이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외화를 벌고,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서구의 영향을 받아 이지역의 문화양식이 파손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제3세계와 선진공업국간의『관광협력』을 요청.【聯】

◇建物건너뛰는多國籍평화군 다국적평화군으로 베이루트에 주둔중인 프랑스병사가 한 건물에서 홀리데이·인호텔건물로 건너뛰는훈련을 하고있다。75~76년 내전때 파손된 이호텔에는 아직도총탄자국이 남아있다。【UPI】

533-2361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찌, 목거리
B536-1692
H245-3539

記者의 눈

경기장 無料입장

간이 크다는 말이 있다. 때와 상황에 따라 사람의 간은 커지기도하고 작아지기도 한다.『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도 있다. 간의 크기와 무관하지않은 속담이다. 간의 크기를 한층 부풀게 하는 요소가 바로 공짜 심리이기때문이다. 우리는 대체로 공짜에 약하다는게 정평이다.

요즘 스포츠 관계자들이 공짜심리를 자극, 관중유치에 성공을 거두고있다. 29일 끝난 대통령배축구대회는 보름간 20여만관중을 동원했다. 경기장무료개방의 선두주자는 야구. 70년대초 야구장이 파리를 날리자 야구관계자들이 묘안을 짜냈다. 여성팬들을 무료로 모실테니 제발 야구장에 와주십사하는 간판을 내걸었다. 젊은 여성은 애인을 데리고오고, 애인은 친구를 부추기고, 친구는 동창을 끌었다. 기하급수로 야구팬이 증가했다. 지난해 프로야구출범과 함께 야구가 어린이들에게 까지 깊이 파고들어 사회문제로 등장할 정도다.

스포츠 발전은 관중동원능력과 비례한다. 관중 없는 스포츠는 관객없는 연극과 다를게없다. 흥을 돋우는것은 관객이지 연출자가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출을해도 흥이없으면 연기자(플레이어)는 외롭다.

작년까지만 해도 축구는 철저하게 관중들로부터 외면당했고, 왕년의 인기구기였던 농구·배구도 옥외스포츠에 눌려 고독한 스포츠로 전락했다. 옥외스포츠가 잠자고있는 겨울에 대회를 열어도 팬들의눈초리는 차갑기만했다.

텅빈 체육관, 찬 바람이 감도는 실내코트, 관중들의 훈훈한체온이 사라진지 오래된 코트에 따뜻한 김이 돌도록하기 위해 배구협회는 지난2월 대통령盃대회때『여성, 어린이 무료 입장』이란는 푯말을 장충체육관에 내걸었다. 연일 만원사례였다. 관중을 끄는 가장 간단한방법이 공짜심리를 자극하는것이라는 해답이 나왔다.

축구협회는 한술 더떠「모든 사람」에게 문을활짝 열었다. 人波에 놀란것은 관계자들만이 아니었다.

어디서 이처럼 축구팬들이 벌떼처럼 쏟아져 나왔을까. 많은 관중에게 보답이라도 하려는듯 경기내용은 알찬것이었고, 선수들의 성실한 자세또한 관중들을 즐겁게해주었다.

이제는 축구장으로 발을 돌려놓은 관중들을 어떻게 붙잡아두느냐, 어떻게 유료관중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것이 과제로 남았다. 입장료를내도 조금도 아깝지않을만큼 알찬 경기 내용을보여주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閔炳宅체육부기자】

5分 인터뷰

내달 發足 한국女性개발院
初代원장 金榮禎씨
"여성문제 기초 다지는게 첫일"

『남녀관계의 불합리한점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근세사에도 있었어요. 중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이 바로 그런 예이지요. 근래에도 외국에는 우리보다 여성문제전담기구가 먼저 설치됐어요. 우린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수있게되어 다행이지요』

4월초에 발족되는 韓國女性資源開發院 초대원장으로 임명된 金榮禎씨(54·梨大교수)는 25년간 강단에 서온 교수답게 차근차근히 취임소감을 밝혔다.

金원장은 梨大영문과를 거쳐 캐나다 터론토대학에서 석사학위(서양사전공)를 받고 다시 美인디애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후 梨大사학과교수로 재직해왔다. 여성의 고등인력개발에 남달리 관심이 많은 그는 세계YWCA 실행위원, 梨大여성연구소장을맡아 여성운동과 학문적뒷받침에 노력해 왔고, 국내대학중 처음으로 梨大가「여성학」을 교과과목으로 설치하는데도 큰몫을 했다.

韓國女性資源開發院은국내 최초의 여성인력개발과 여성문제전담기구. 보사부 지원을 받는 법인체로 설치되고, 사무실은 南大門옆 현 국립여성복지원 건물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3년동안 인구의반이나되는 여성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란 어려운일이지만 기초를 우선 다지도록 전력투구할생각이지요』

그러나 그는 각 계층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은 정확히 파악, 앞으로의 청사진을이미그려놓고있었다.

『미혼모와 불우여성을 우선 예방해야지요. 다음으로 일할능력과 시간이 있고 의욕도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못하는 고급 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길을 터주고 싶어요. 도시 중산층 주부와 해외 기술자 아내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탈선을 막고 사회발전에도 이바지하도록 해야지요』

한편으로는 농촌여성의 인력개발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예전엔 집안에서 길쌈까지했던 농촌 여성들이 가전제품 사용, 영농기술의 변천등으로 가사의 역할이 변하고있어 이에맞는 새역할을 정립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저소득층 근로여성에대한 애정도 두텁게 느끼고있다. 우리나라 산업발달의 최일선에서 초석이 된 근로여성들의 작업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방직공장등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직업병이 많다는것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는 남녀관계가 올바로정립된 바탕위에서만 가능하다고 [illegible] 남녀는 평행이 아니라 [illegible] 로교차하는 X지의관계로 흘러가고있어요. 여자가 취업하면 남성실업자가 늘어난다고 남자들은 비판하지요. 그러나 기혼여성의 40%가 취업한 미국의 경우 남성들은 여성전담분야인 미용·간호업에 진출하는등 새분야를 개발하고 있는걸보면 남성들의 비판은 기우지요』

그는 남성의 의식변화와 여성자신의 의지가 병행되어야한다고 말한다.

개발원이 정식 발족되면 그는 유학기간외엔 떠난일이 없던 교수직을 휴직할 예정. 부군 金俊容교수(서울工大)와의 슬하에 남매가있다. 개발원의 규모는 1局4室에 종업원은 1백64명으로 구성될 것같다.【李享淑기자】

經濟集卓

建國후 첫시도 내년豫算 凍結

國債없어 稅金3천억 더거둬야
성장7%·物價2% 전제가 열쇠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억제, 동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목표라고 할수 있다. 예산팽창이야말로 30년묵은 고질이다. 60년대의 연평균 예산증가율이 28.9%, 70년대는 28.1%였다. 80년대에 들어와서도 매년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20년만의 초긴축 예산이라는 올해 예산도 전년대비 9.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8·3조치 직후인 73년에 예산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일이 있지만 그것은 특수한 사정(8·3조치)으로 인한 단 한번의 예외였다. 예산규모를 전년수준에서 동결해보겠다고 하는것은 건국후 처음 있는 시도이고 전례가 없는일이다.

일반적으로 적정한 예산규모란 전년대비증가율이 경상성장률과같은 수준이 되는것이다. 정부가 내년의 실질성장률을7.5%, 도매물가상승률을 올해의2.0~2.5%보다 낮은수준으로 보고있으니까 상식적으로보면 내년예산은 올해보다 8~10%정도 늘려잡는것이 적당하다고 할수있을것이다.

내년예산을 올수준에서 동결하겠다는것은 전례가 없는일일뿐아니라 이같은 상식에도 들어맞지않는것이다.

현실적으로 볼때도 다른건몰라도 공무원봉급만은 적어도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려줘야하고 각종공사비나 경비도 전연 오르지않을수는 없는일이기때문에 실제예산동결을 한다는것은 불가능한일이다.

전례가 없고 상식에도 안맞고 현실적으로도 무리가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가예산동결 방침을 천명한것은 초긴축보다도 더강력한 긴축의 의지를표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 2년째로접어든 한자리수물가가 앞으로1년만더 끌어주면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물가의안정기반이 굳어진다고보고있다.

그렇기때문에 한자리수 물가 3년째가되는 내년이물가안정을위해 가장 중요한해라고보고있다。경제기획원의康奉均 예산실의관은 내년도예산을짤때 첫번째고려사항은 물가라고말하고있다。적어도 재정에서만은 물가에 부담을 주지않도록하고 오히려 안정에적극 기여할수있도록 하자는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의첫번째 지침이라는것이다.

예산규모의 전년수준 동결을『목표』로 제시하게 된것은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들은 예산동결이『노력목표』이지『실천목표』는 아니라는점을 인정하고 있다.

예산이 물가에 부담을 주지않게 되려면 우선 재정적자가 없어져야 한다。지난해 3천5백억원,올해 3천4백억원규모로 발행 됐던 국채를 내년에는 일체 발행치 않기로 한 것은 통화증발을 통한 물가압력을 조성하지말자는 배려때문이다。

올해 예산상 세입은 10조7백억원。여기에 국채발행수입 3천4백67억원을 보태서 10조4천1백67억원의 지출을 충당토록 돼 있다。내년에 국채를 발행치 않는다면 예산규모가 올해수준으로 10조4천억원선에서 동결된다 하더라도 세입이 3천4백억원 가량 더 늘어나야 한다。

사실상 동결이 불가능해서 얼마간이라도 예산이 늘어나야한다면 예산규모 1%증가에 1천억원 가량씩 세금을 더 거두어야한다。예산증가율 0%에도 세금을 3천4백억원 더 거두어야하는데 예산이 5% 10%씩 는다면 1조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더 거두어들이지 않을수없게되는것이다。

경기동향이나 물가추이를 감안해볼때 이같은 규모의 세수증대는 기대하기어렵다。물가상승세에 따른 세수의자연증가효과는 최근의 현저한 물가안정추세에따라 기대할수없게됐고 경기동향도 시원스럽지못한 형편에 올해보다 1조원이나 더많은 세금을거둔다는것은 쉬운일이아니다。세금거두는게 쉽지않으면 결국 또 국채를 발행해서 모자라는 돈(재정적자)을 충당할수밖에 없게되는데 그렇게되면 통화증발→물가압력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수없게된다。

재정에서 물가에 부담을주지 않기 위해서는 절약하고 또 절약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예산당국의 판단이다。

오는 5월말까지 내년도예산요구안을 제출하게될 각부처에『예산규모의 83년수준 동결』을 지침으로시달한 경제기획원은 예산낭비 요인은 절대 용인치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예산상 單價와 기준소요 物量은 83년수준에서 동결한다고 예산편성지침에다 명시해 놓았다。

기구증설과 공무원증원은 계속 억제하고 공무원 봉급은 2~3%내외의 물가상승률(소비자)만 반영하는 실질임금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선에서만 조정할 방침이다。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품질관리、기술개발등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에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공기업들의 경영관리체계를 쇄신해서 투자효율을 높이고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 한다는방침이다。【朴武기자】

SANYO 전자계산기
전자저울
□저렴한 가격
□각종 신품과 중고품
$295로부터
AKRON CASH REGISTER
248 Browns Line, Toronto, Ontario M8W 3T4
(416) 251-7054

일본식당
舞子
HAPPY HOUR
(월요일~토요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초밥 5개 무료제공
☒주류(포도주, 맥주제외) 두잔에 한잔값만
401 BLOOR ST. E.
☎967—0922 (블루어× 셀본서쪽)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길림산녹용, 진품웅담
원녹용, 야생녹용
특별세일
지방문의환영
⊙관절염 특효약
⊙산삼 도착
⊙자동전자약탕기
◉종합비타민 ◉우황청심환 ◉홍삼 ◉간장병
◉인삼 ◉NUT 일체 ◉보약 ◉비만증 ◉부인병
◉웅담 ◉녹용 ◉중풍 ◉신경통 ◉양기부족
◉산삼 ◉사향 ◉심장병 ◉고혈압 ◉위장병
645 BLOOR ST. W. TORONTO
☎: (416)530—0522, 530—4900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창립7주년) $595.00
분납가능 SANYO
취급품목
한글, 영문 타자기
금고, 카비넷, 책상,
각종 계산기, 각종도장
Tel. 532-0111
622-6754
교포 경영
김 성 수

지역출신 優待…常識線서 대폭改編

民正黨 국회要職 人選분석

下馬인사 예정대로 權전총장復歸 주목

30일저녁 발표된 民正黨의 국회要職人選결과는 그동안 下馬評에 오르내리던 후보들이 예상대로 상당수 들어간 상식선의 대폭교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인것 같다.

특히 의장단의 경우 丁來赫의장이 물러나고 대신 蔡汶植부의장이 승진할 것이라는 추측은 오래전부터 나돌았었고 부의장에 內定된 尹吉重의원도 의장후보의 하나로 지목되던 元老여서 뜻밖의 인사가 아니다.

부의장 후보로는 5~6명의 인사들이 下馬評에 오르내렸으나 결국 尹의원으로낙착되었는데 국회의장을 제외하고는 부의장은 물론 常委長 내정자들도 모두 발표직전에 통고를 받은것이나 電擊的으로 발표된것도 特記할만하다.

金瑢泰대변인은 전격발표에 대해『오늘 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깁작스런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으나『결정은 이미 나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국회의 13개 常委長과 2개 特委長의 人選을 보면 李鍾贊원내총무가 맡게될 운영위원장과 金永先 국방위원장 李世基 올림픽特委長등 3명만 그자리에 머무는 대폭개편이다. 그러나 法司의 韓柄宋(현文公) 財務의鄭在哲(현豫決) 商工의 裵命國(현建設) 豫決의 金宗鎬의원(현內務위원장)등 4명은 水平의 자리바꿈을한 셈의 케이스(?)로 꼽아야 할것같다.

그중에서도 鄭在哲 金宗鎬위원장이 특히 돋보이는대우를 받은것은 지난2년간의常委운영실적을 평가한 論功行賞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구출신을 優待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적용된 탓인지 13개 常委長중 前半期에 3명(朴東鎭외무·金宗鎬내무·朴泰俊재무)이던 전국구의원 출신 상임위원장은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全無한 상태가 되었고 金宗鎬豫決위원장이 特委長으로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번 인사에서 손꼽을수있는 특징의 하나는 작년 5월 거액어음사기사건 와중에서 黨職개편으로 물러났던 인사들의 復歸를 꼽을수있다. 당시 사무총장으로 있다물러난 權正達의원과 創黨때부터 대변인이었던 奉斗玩의원이 각각 內務와 外務위원장으로복귀한것이다.

당시 정책위의장 羅頊旲, 정무장관 鄭宗澤, 총재비서실장 李漢東의원은 이미 市道위원장으로 다시 黨職에돌아왔다.

奉의원의 외무위원장 기용은 朴東鎭위원장의 퇴진이전제가 될경우 당연할 정도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손꼽혀왔었기 때문에 놀랄일은아니다.

그러나 權正達前사무총장의 내무위원장內定은 약간意外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창당主役으로 사무총장을 지낸 前歷때문에 국회부의장 정무장관 중앙위의장설까지 나돌았고 사실상 民正黨은그에게 마땅한 자리로대우하느라 苦心한흔적이 역력하다.

『내가 사무총장을 그만두게될때 시켜만준다면 慶南道支部위원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한 權翊鉉총장의 최근얘기는 그러한人選의 苦衷(?)을 간접적으로 비유하고 있다.

權前총장은 자신이 작년의 어음사건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결백의 증거로서도 黨內外에서는 그가 黨職이나 국회要職을 맡게될것이라는 얘기가 끈기있게 나돈바있어 常委長 대우는 그런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견해도있다. 어떻게보면 높은자리에 있다가 낮은자리로 갈수있다는 人事의 先例를 남긴셈이기도 하다.

經科위원장으로 내정된 柳瓊賢의원은 그동안 수석부총무로서 숨은 노력을 한 공적을 산것같고 평소말없이 조용하던 李海元의원이 文公委를 맡은것은 그의 원숙하고 노련한 對人관계의 長拔을 인정한것으로 풀이된다.

金湜의원은 도중에 잠깐 국회부의장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결국 처음에 나돈 說대로 農水産委를 맡았다.

保社의 李贊赫위원장은 예측밖의 인사였고 교체위의 鄭東星, 건설의 朴權欽위원장은 그동안 나돌던 說과는 반대로 바뀌어 人選된셈.

아뭏든 民正黨은 지난21일 대표위원의 경질, 22일 黨4役의 人事에 이어 30일 국회要職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함으로써 제3라운드의 인사를 끝낸셈이다.

【黃昭雄기자】

國會要職 새얼굴들

革新정당 출신 한때 獄苦치르기도

국회부의장 尹吉重

民正黨창당에 참여한 革新系의 元老로 현재의 新社黨총재인 高貞勳의원은 자유당시절부터 革新정당을 같이한 후배이기도하다. 日本대학법학과를졸업한 24세때 日本高文 행정·사법 兩科를 모두 합격한 수재로 해방직후 헌법기초위원으로 활약했으며 2代때 국회에 진출했다. 自由黨시절 進步黨간사장을 지내다 曺奉岩사건때무에 수난을받았으며 5·16후에는 統社黨사건에 관련, 7년동안 옥고를 치렀다.

소신있는 법조인

法司 韓柄宋

律士출신의 정치인(大邱中·西)。高大정치학과를 졸업하고 高試司法科에 합격, 판사로 근무중 每日新聞필화사건에 무죄판결을 내려 소신있는 법조인이란 評을 들었다.

그후 大邱에서 변호사로 개업하다가 8·9·10·11代의원에 연속당선된 4選으로 民正黨내에서는 가장 多選의원중의 한사람.

議政생활중 대부분을 法司委에서 지내왔으며 친정에 복귀한셈. 부인 朴仁淑여사와의 사이에 3남1녀.

時代감각 뛰어나

外務 奉斗玩

한국일보기자로 출발하여 워싱턴특파원을 지낸뒤귀국후 TBC로 방향을전환, 뉴스전달의 새로운경지를 개척한 선구자.

지난3·25총선때는 서울 麻浦·龍山에서 출마, 전국 最多득표를 기록. 언론계생활을 통해 익힌 냉철한 시대감각이나 국제무대에서 터득한 매너는「特1級」。

부인 金濟玉여사(45)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있으며 취미는 테니스.

民正 創黨의 主役

內務 權正達

民正黨의 創黨主役이었던 前民正黨사무총장. 개혁주도세력으로「돈안쓰는정치 깨끗한정치」를외치며民正黨을 끌어왔으나 지난해5월 李·張사건 태풍에 휘말려 黨職에서 물러났었다.

安東高와 陸士(15期)를거친 예비역준장으로 表裏不同한것을 가장 싫어하는 솔직담백한 성품으로 취미는 테니스, 골프, 바둑등 다양하다. 부인 龍仁順여사(45)와의사이에 3녀.

金融界서만 20년

財務 鄭在哲

5·16직후 재무부관리로 官界에투신한이래 전매청차장, 재무부기획관리실장, 産銀부총재, 信用보증기금이사장, 韓一은행장등 재정, 금융분야에서만 20년간 몸담아온 財政通.

그의 화려한 경력이 말해주듯 初選으로서는드물게 豫決위원장직을 맡아 議政史上 초유의예산안의 與野만장일치통과라는 大業을이루는데一助했다.

사회부장관을 지낸 故錢鎭漢씨의장녀인 錢金周여사(53)와의 사이에 1남2녀.

討論능한 秀才型

經科 柳瓊賢

40대초반의 나이에 비해 신중하고 꼼꼼하지만 토론에 말문이 열리면 能辯으로 이끄는 秀才型.

京畿高―서울法大를 거쳐 東亞日報정치부차장으로 청와대를 출입하다 舊共和黨에 발탁돼 고향인 全南 順天·求禮서 10대의원에 첫 당선, 四代째 살아온 順天의 토박이로 10대에 이어 11대 총선에서도 똑같은 경쟁자들과 三巴戰을 치러 連勝했다.

부인 宋知昡여사(35)와의 사이에 2男.

敎授출신 政治人

文公 李海元

모나지 않는 성품으로 對人관계가 원만한 대학교수출신의 정치인.

8대국회때 堤川과 丹陽에서 출마, 舊共和黨의원으로 원내에 진출, 한때 대변인으로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3·4·5대의원을 지낸 先親 李泰鎔씨의 뒤를 이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했으니 父傳子傳의 選良.

부인 洪英姬여사(48)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있고 취미는 등산과 書道.

不正모르는 고집통

農水産 金湜

陸士11期출신으로 국방부물자조달국장으로 있다가 11代총선에서 湖南을 대표한 軍출신으로 政界에 발을디딘 예비역 소장.

每事에 철두철미하며 고집이 강하다고「고집불통」이란 별명때문에 軍에서 不正의 소지가 가장많은 軍需분야에 장기간복무하면서도 잡음하나 일으키지 않았던 강직한 면이 있다.

부인鄭英子여사(47)와의 사이에 2남1녀가 있으며 취미는바둑(2급)과 골프.

한때 陸士교수도

商工 裵命國

陸士(14期)출신으로 서울大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숨은 學究派로 육사교수도 지냈다.

強骨型에다 높은 목소리가 우직하고 저돌적인 인상을주지만 오히려 소탈하고 구김이 없어 2년간 말썽많은 건설위를 무난히 이끌어온 사교력을 보이기도했다. 육사재학시 럭비팀주장으로 활약한 스포츠 애호가로 裵命仁법무장관은 그의 實兄. 가족은 부인 張順妙여사와 1남1녀. 취미는 테니스와 골프.

勞總탄생에 一翼

保社 李贊赫

해방직후인 46년3월 左·右翼의 分裂과 대립속에서 자유노동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현 한국勞總의 前身인 大韓勞總을 탄생시키는데 一翼을 담당한 노동계의 元老.

67년 한국勞總위원장에 당선,『노동 3權을 규제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兵士로 부터 총칼을 뺏는 格』이라고 말한바 있는 그는 夜間대학을 개근한 勉學派. 취미는바둑. 부인 金玉成여사(55)와의 사이에 3男이 있다.

뚝심의 再選의원

交通 鄭東星

서글서글한 인상에「뚝심」으로 이름난 再選의원.

對人관계가 원만해 동료의원들로부터 好感을사고있으며, 黨內에서는 지역구관리에 모범적인 의원으로 定評이 나있다. 交通委員長으로 기용된것도 그의 모나지않은성품에 京畿道支部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무난히해낸 점등이 높이평가됐기 때문이라는 얘기. 柔道 有段者로 취미는 등산과 낚시. 부인 全信順여사(43)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있다.

2選의 獨學立身

建設 朴權欽

가난한 선비집안에서 태어나 국민학교를 졸업한후 정규교육은 거의 제대로 받지않았지만 獨學으로 立身한 2選의원(慶北慶州·月城).

10代에서 初選으로 野黨의 대변인직을 맡아 당시金泳三총재의 40대旗手論을 비롯, 주로 金前총재의 연설·회견등을 도맡아 起草해온 브레인으로 即席批判眼이 돋보인다는評。

民正黨創黨에 참여, 11代선거에 再選되었는데 書藝솜씨는 水準級. 부인 金門子여사(41)와의 사이에1남5녀.

착실한 실무行政家

豫決 金宗鎬

서울大法大를 나와 3년간의 청와대비서관으로 근무한것을 빼고는 줄곧 내무부에서 차관까지 지낸 착실한 실무행정가출신.

내무부새마을 담당관을 거쳐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새마을운동 정착에 전력,「새마을운동과 지도이념」이란 저서를 내기도 했다.

특이한 취미로 탁구를 잘하는 그는 韓惠媛여사(43)와의 사이에 3남2녀. 취미는 골프.

재치·話術뛰어나

총재비서실장 沈相宇

재치가 넘치는 話術과 위트로 처음 만나는 사람도 십년지기처럼 느끼게 하는 對人관계로 널리 알려진 初選.

政界에 들어오기전엔 全南每日新聞사장으로 언론계에서 경영솜씨를 발휘하기도. 주위에서는 센스가 뛰어나고 사물을 깊고 폭넓게 보고있어 기업가로서도 大成할수있는 인물이란評.

주말이면 어김없이 캔버스를 메고 야외스케치를 즐기는 프로급의 그림솜씨를 지녔다. 부인 林玉男여사(43)와의 사이에 3남2녀.

大學總長지낸 初選

國策연구소장 任哲淳

中央大교수 총장을 거쳐 재단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初選의원. 中央大설립자인 故任永信여사의 인척으로 사실상 門中과 中大의 뒷받침과 환경속에 순탄하게 성장했다.

신설된 國策연구소장에 발탁된것은 學界출신답게 평소만사에學究的인 어프로치를 즐기는스타일이 평가된듯.

서울高와 미국아틀랜틱大를졸업, 콜럼비아대학에서 경제학박사를받기도. 가족으로는 부인 李貞暎여사(42)와의 사이에2남2녀가있다. 취미는낚시.

蔡국회의장國會운영포부

"對話로 政治 풀어나가겠다"

10~20년내다보고努力 解禁政局되게 힘쓸터

좀처럼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항상 理路整然한 論理를 전개하기로 定評이있는 蔡汶植국회부의장은 의장內定발표가 있은 30일저녁 서울三仙洞자택에서 立法府의 首長이된다는데 대해 상기된표정을 지었다.

『소감을 말하라지만 아직 정식으로 선출된것도아니고… 그저 身命을 바쳐 막중한 소임을 완수, 제5공화국이 선진조국을 창조할수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격렬한 用語구사를 삼가고 특별한 座右銘도 가지고있지 않다고 평소 말해온 蔡부의장은 이날만은「身命을 바쳐」「조국을위해」란 말을 서슴없이 사용하면서 多辯과 敷衍설명을 곁들였다.

『국회는 의장이 혼자서 이끌어가는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시대 정치에 同參한 與野의원 모두가 憲政史에 길이빛나는 11代국회가 되도록 동료의원들과 合心協力하겠읍니다』

새의장으로서의 국회운영소신을 이같이 밝힌 蔡부의장은 이어『국가의 당면문제가 결국은 국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는 오늘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10년·20년후는 물론 조국의 원대한 목표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할것』이라는 결의를 다짐했다.

―의장으로서 어떻게 政治力을 발휘할 생각인지。

『의장은 英語로말하면 스피커(SPEAKER) 아닙니까. 국회는 동료의원이 움직이는 것이고…。항상 토론과 대화를통해 萬事를 풀어나가야지요』

얘기가 이어지면서 화제가 85년總選과 관련, 11代국회후반기부터 고개를들 것으로 예상되는 野黨의정치공세에 이르자 蔡부의장은『국회법에 명시되어있는 의장의 권한은 정말로 막강하지만 국회법은 實定法이고 實定法은 每事에적용되지 않는것이 최선의선택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의 권한이 행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그러면서 그는『또 與野의원들도 한걸음 더나아가 항상국가와 민족을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있기때문에 안심하고있다』고 단언했다.

―野黨觀에 대해。

『나는 野黨을하다가 轉身하여 與黨을한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자신과 긍지를가지고 民正黨에참여했고 또 국민들도 民正黨의 행동강령에 뜻을같이하고있다고 보기때문에 이상에맞는정당의 선택은 자연스럽다고봅니다. 또 옛野黨동지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解禁政局에 대해 어떻게대처할것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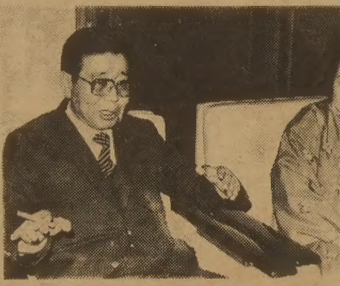
『추상적으로 말할수밖에 없겠지만 동료의원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解禁政局이 풀려가도록 힘을 다하겠읍니다』

부인 金聖淑여사(57)가 27년간 산부인과를 개업하면서 자신의 정치뒷바라지를하고 家計를 이끌어왔다고 밝힌 蔡부의장은『안경을 끼고 응급처치를 하는 안사람의모습이 안스러워 休業할것을 종용할생각을 갖고있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휴업계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이 추구해온 政治一生이 항상 가져온 政治에 대한 회의때문인지 3남1녀를 모두 자연과학을 택하도록 권유했다고밝혔다.

하루3갑의 줄담배를 피우는 愛煙家로 취미는 독서와바둑(아마2級)。

【李以春기자】



◇國會議長으로 內定된 蔡汶植씨부부。

메아리

自進稅

萬愚節이다. 철없는 거짓말 보다는 거짓말 같은 眞談을 들어 보자.

기네스북에는 두가지 橫財기록이 올라 있다. 모두 福金에 관계된 것이다.

하나는 75년 10월 브라질 蹴球福券에서 터진 福金 2백45만1천5백49달러다. 달러의 환율을 7백50대 1로 쳐서 약18억원. 福券값이 58달러(2장)였다니까 4만2천2백69배의 횡재다.

다른 하나는 미국 뉴저지州 州營福券얘기다. 76년 1월 에릭·리크라는 26세 사나이가 福券에 당첨, 매주 1천7백76달러를 평생 지급받는 행운을 잡았다. 당첨자가 앞으로 50년을 산다면, 그 총액은 4백60만달러(약35억원)가 된다.

그러나 이 기록은 벌써 옛것이다. 작년 11월27일 뉴욕福券은 5백만달러(약38억원) 福金 당첨자를 냈다. 행운아는 43세의 흑인. 그는 前妻에게 年5만달러, 도합 1백만달러를 주고 오는 6월 새장가를 든다.

한 사람 차지로는 이만 못하나, 1회의 福金 총액이 1천1백4만4천 4백80달러(약83억원)에 이른 기록도 새로 수립됐다. 뉴저지 州營福券에서의 일이다.

뉴욕福券도 마찬가지지만, 週 1회 발행되는 뉴저지福券은 단순추첨이 아니라 빙고처럼 번호맞추기를 겨룬다. 1장 1달러짜리 福券을 사되, 1~36의 번호를 임의로 고르며, 이 여섯 번호가 모두 들어맞아야 당첨이 된다. 이 방식은 그렇잖아도 賭博性이 강한데, 그 週에 당첨자가 없으면 福金은 다음週로 넘겨져 엄청난 돈이 걸리게 된다.

지난 연말에는 이렇게 6주동안 福金이 쌓였다. 소문이 나자 다른 州의 福券狂들이 전세버스로 몰려드는등의 법석이 났고, 결국은 4명의 당첨자가 나와 福金을 나누어 차지했다. 계산에 의하면 福金의 倍率은 46만배, 당첨 확률은 1백90만분의 1이다.

이만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까지 5백74회 발행한 住宅福券에 꽤 많은 福金이 걸려 있다. 그 기록은 지난 연말 5백59회福券에서 1등과 행운상까지 모두 10장이 당첨된 福金총액 3천5백40만4백원. 이 때까지의 기록은 재작년, 역시 연말에 터진 9장 당첨의 福金총액 3천3백20만4백원이었다. 福金기록과 연말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른다.

꼽아보면, 모두 즐거운 얘기들이다. 한번쯤 投者의 꿈을 福券에 걸어 봄직도하다. 그러나 遇然에 승부를 거는 福券은 어디까지나 賭博이다. 그것이 賭博이면서 투전과 다른 점은, 투전에서는 참가자가 서로 得失의 위험부담을 안지만, 福券에서는 위험부담이 참가자에게만 있고, 발행자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다.

福券이 公認되는 까닭은 바로 이 특성에 있다. 위험부담 없이 돈을 모으는 妙味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1백3개국이 福券을 國營 또는 公營한다. 57개국이 가입한 國際機構도 있다. 나라마다 福券을 내는 목적과 명분은 여러갈래지만, 올림픽경비도 그중의 한가지다. 72년 뮌헨 올림픽이 약 1천3백억원, 총경비의 34.4%, 몬트리올 올림픽은 1천4백10억원, 총경비의 54.6%를 福券수입으로 댔고, 모스크바올림픽 때는 福券수입이 3천9백억원에 이르렀다. 福券의 妙味는 東西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없다.

이런 先例를 서울 올림픽이 외면할 까닭은 없다. 福金 1억원의 올림픽 福券을 발행하여, 1천1백16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다. 계획대로 하면 당첨금의 倍率은 20만倍, 億萬長者가될확률은 2백만분의 1이란 계산이 나온다. 그만하면, 세계기록에는 못미쳐도, 나쁠 것 없는 계획이다. 福券으로 올림픽의 경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수있다면 그 이상의 다행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妙味의 뜻을 뒤집으면 福券이란 결국「自進해서 내는 稅金」일뿐이다. 그 納稅者는 대개가 가난한 층이란 것이 일반적인 관찰결과다.

오늘 萬愚節에 제1회 올림픽 福券이 발매된다. 오늘 5백원을 내면, 당신도 1억원을 벌수가 있다는 것은 萬愚節거짓말 같은 眞談, 아니면 眞談같은 거짓말이다.

어떻든, 이맘에 끌려「올림픽自進稅」를 낼 사람이 줄을 이을 것은 틀림이 없다. 그 萬愚節행렬을 보며, 節稅에 능한 富者양반은 이렇게 내뱉을 지도 모른다.「과연 萬愚로구나」。

金昌悅 <編輯委員>

記者의 눈

旅券발급 規制

日製전기밥통소동은 급기야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어렵게만들었다. 외무부는 旅券발급업무를 地方廳으로 이관하는 1일을 기해 여권법시행細則을 개정하여 여권발급기준을 까다롭게하고 종전 5년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을수있는 상용 사람들에게 2년유효기간의 여권으로 대치발급키로 한것이다.

외무부는 이같은 규제의 강화에 대해 최근 不要不急한 해외여행이 急增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시정, 보완하기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실 81년8월 해외여행자유화조치이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러가지 不美스런 일들이있었던점은 부인할수 없다. 친지방문을 빙자하여 외국에 나가선 접대부노릇을한다든가 여행알선업체의 중개로 聖地순례나 세미나참석등 뚜렷한 목적없이 문화여권을 받아 관광지를유람하며 외貨를 낭비하는일이 잦았다. 또 5년짜리여권발급이후 해외不法체류자가 急增했고, 81년까지黑字였던 여행경비收支가작년에는 1억3천만달러나 赤字가되는등 외화소비가 늘었고 外製品의 過多搬入등도 해외여행자유화 이후에 더한층 뚜렷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부조리는 언젠가 한번은 치러야할 紅疫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해 미스서울 李淳福양의 여권變造사건이 났을 때 일부국민들중에는 외무부가 여권을 濫發하는게아니냐는 소리도있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자들의 신원을 보다 엄밀히 체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때 외무부의 관계간부는「한두명의 부도덕한 사람때문에 전체국민이 희생을 당할수는 없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다고하여 여권신청서류를 복잡하고까다롭게 요구하는것은 자유화, 개방화로 향하는 우리사회의 진로와는 다른것이다」라고 여행자유화조치가 후퇴하지 않을것임을 示唆했었다.

그러나 지난2월 한떼의 주부들이 일본에서 日製전기밥통을 마구사다는 日紙의 보도는 우리정부의 이같은 묵직한태도를 흔들어놓았다.

이사건이 나자 국무총리이하 관련장관들이 여행자유화의 보완책마련에 나섰고 결국 여권발급규제조치가 나온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처럼맞은 여행자유화정책을 국민스스로 規制를 自招한 셈이됐다.

전기밥통때문에 여행자유화조치가 통제를 당한다면 남보기가 부끄럽다. 해외여행자유화조치는 通禁해제와 함께 새공화국의開放意志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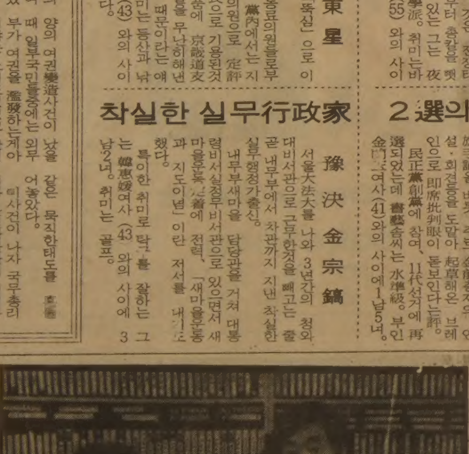
기자는 묻고싶다. 通禁해제이후 심야교통사고가 늘고 술꾼정상이가 많아졌다는 이유로 通禁을 환원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받아들이겠는가. 나무는보고숲을보지못하는愚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정한 自由, 開放정책은 통제로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질서의식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李在武政治部기자】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한국에서 절찬리 상영중인
해빙, 여자의 강,
보통사람들, 풍운 등 입하!
Now 1,600테잎 보유
외국테잎 다수 보유!
한국비데오센터
678 BLOOR ST. W.
☎ : 532-0210 손병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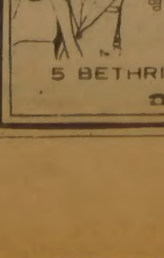
교육전도사 청빙

본교회에서는 주일학교와 중·고등 학교학생들을 지도하실 교육전도사를 초빙코자 합니다.

⊙자격 : (1) 기독교교육의경험있는 신학교 재학생이나 또는 졸업생
(2) 신앙이 확고하고 사명감이 있는 일반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도 가함.
(3) 2중언어로 지도할 수 있는 분.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한글및 영문)
⊙연락처 : 미씨사가연합교회
⊙주소 Mississauga Korean United Church
2500 Mimosa Rd. W.
Miss. ONT. L5B 1P7
☎ : 교회(416) 276-5163
사택(416) 277-2394

미시사가 한인연합교회
당회장 유환진

O'INCHON RESTAURANT
오'인천식당
아늑한 분위기, 고향의 멋과 정감이 깃든 오'인천. 가족, 벗, 다정한 연인들과 YONGE ST. 를 거닐면서 ROSEDALE SUBWAY를 이용하시어, 함께 들려 주세요.
ROSEDALE SUBWAY / BLOOR / YONGE ST.
□한식, 일본식, 양식. 주류일절취급
1112 YONGE ST.
☎921-4468 박승홍
●자격증 소유한 요리사 구함.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배 성·신현희
□권순근과 ADD·K악단
영업시간 : 월~목/오후 2시~새벽 1시
금~토/오후 2시~새벽 2시
일/오후 2시~새벽 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한국민족주의 原點을 찾는다

現代史의 現場 ㉑

題字 原谷 金基昇

永遠한 民族主義者

白凡 金九

光復기쁨보다 分斷 통탄
배짱·외곬 一生이 兇彈에

白凡 金九는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자신의 유일무이한 소원은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라고말했다. 그가 염원하는 자주독립이란 민족국가의 건설로 귀착되고있다.

1919년 임시정부가 중국 上海에서 수립됐을때 그는 정부청사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다.

白凡은 그까닭을 이렇게설명했다.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나라에서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독립한 제나라에서 미천한 것이 남의 밑에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白凡은 이를 실현하기위해 민족을 억압하는 자를 적대했으며 민족을 배반하는 자를 용서치 않았다.

이에대한 그의 적개심이 때로는 폭력행사로 나타나기도 했다.

1945년 70세의 老혁명가는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은그가 소원했던 자주독립국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토는남북으로 분단되어가고 있었으며 열강은 신탁통치를 하겠다고 덤벼들었다.

白凡은 신탁통치야말로 한민족의 역량을 얕잡아보는강대국들의 횡포라고 분노했다. 그래서 제2의 독립투쟁을하는 각오로 이에맞서 투쟁했다.

白凡은 민족의 양심과 자주역량을 확신했다. 조국의 운명이걸린 남북분단의 문제 역시 민족의 양심과 자주역량에 호소하면 극복될수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1948년4월19일 金日成과의 회담을위해 平壤行을 결행하기도했다.

그러나 민족의 조국이아닌 사상의 조국을 앞세우는 공산세력과의 대화는 애초부터 실패가 뻔한것이었다.

南北회담의 실패로 白凡은 親美세력과 親蘇세력 모두로부터 견제당했다. 양대 세력은 남과 북에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 집권세력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그같은 분단상태가 지금에 이르고 있다.

白凡은 이렇게 말했다.

『철학도 변하고 정치 경제의 학설도 일시적이어니와 민족의 혈통은 영원하다.

어느 민족내에서나 종교로 혹은 학설로 혹은 경제적 정치적 이해충돌로 파를 갈라 피로써 싸우는 일이 없는 민족이 없거니와 지나고보면 그것은 바람과같이 지나는 한때의 것이라. 오늘날 좌우익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반도의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美蘇공동위원회라는 것도 사실상 南北에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정부형태가 자리를 잡을때까지 시간을 벌기위한 전략회담의 성격으로 변질된 상태였다.

이같은 美蘇의 정치적인 속셈을 알아채는데있어서 李承晩은 金九보다 한발앞섰던것으로 보인다. 1945년12월 모스크바3相회의가 한국에대한 신탁통치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李承晩이 이미 예상했던 일처럼 냉담한반응을 보인데비해 金九는 격노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李承晩은 또 金日成이 소련을 업고 「北朝鮮인민위원회」를 설치할낌새를 알아채고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1948년5월10일 선거를통해 대한민국정부가 탄생되자 북한에선 기다렸다는듯이 그해 7월19일 공산정권을 수립했다.

金九는 親美주의자였을 망정 親蘇주의자일수는 없었다. 臨政초기부터 좌익세력에 시달림을 받았고 臨政내의 좌익을 소탕하는데 앞장섰던 그였다.

臨政말기臨政내에좌익을포용하기도했으나 그것은 臨政의 국제적인 승인을 얻어내기위한 방편이었다.

그는 소련의 공산주의를계급독재로 파악한반면 언론의 자유, 투표의자유, 다수결에의 복종을 기초로한 정치형태를 미국식 민주주의로 파악했다. 그래서 兩者擇一을 한다면 후자를택하겠다고 서슴없이 밝혔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兩者를 초월한 민족주의자였다.

그런의미에서 白凡金九는 배짱의 인간이기도했다. 재물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그가 배짱으로 삼았던것은 오로지 민족이었다.

그래서 그는 같은 조상 같은 땅덩어리밑에서 같은 언어를 말하는 한민족임을 무한히 자랑으로 삼았다. 같은 민족이기때문에 그는 모든이해와 갈등이 민족이라는 이름밑에서 하나로 뭉쳐질수있을것으로 믿었고 이같은 믿음위에서 민족의 대동단결을 위해 끝내 자신의 몸을 바쳤다.

京橋莊, 그것은 이같은 그의 믿음에 대한 배반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1949년6월26일 낮12시 그는 이곳에서 육군소위 安斗熙가 쏜 4발의 총성과 함께 쓰러졌다. 亡國의 恨을 품고 중국대륙에서 나라의해방과 독립을위해 압제자에대항하여 싸워온 한 독립투사는 해방된조국, 그러나 혼란의 시대상속에서 조국의통일과 완전한독립을 보지못한채 눈을 감아야했다.

서울鍾路區平洞108번지 고려병원.

仁旺山줄기가 멈추는 곳에 서있는 이병원이 바로 한많은 애국지사가 한을 품은채 일생을 마감한 곳이다. 비록 내부시설은 바뀌었어도 외형만은 옛날 그대로이다. 白凡이 저격을 당했던 2층 응접실의 향나무무늬 벽은 옛 그대로의 윤기를 발했다. 지금 이방의 주인은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책을지어 더욱 유명해진 이병원 정신신경과장 李時炯교수였고 거실은 회의실로 바뀌어 있다.

京橋莊의 이전 이름은 竹添莊. 竹添莊시절의 주인은 당대의 자산가이자 鑛山王으로 불리었던 崔昌學이었다. 崔昌學은 日帝의 행정구역개편으로 舊韓末의 京橋洞에서 竹添町으로 洞名이바뀐 이곳에 호사를極한 저택을 지어 그이름을竹添莊이라불렀다.

불란서 건축양식의 2층石造건물인 竹添莊은 지붕의 돌기와로부터 마루에깐 널판에 이르기까지 모두 外製였고 石工조차도 중국의 일류급으로 동원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관문에 순금제 문고리를 붙였는가 하면 실내장식에 쓰인 목재는 대부분 일본의 향나무여서 실내는 언제나 향내가 그윽했다고한다.

이처럼 사치스런 건물이한때나마 風餐露宿하며 독립운동을 해온 노혁명가의 私邸가 된경위에 대해 白凡기념사업회 鮮于鎭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해방후 국내에서는 臨政의 환국에 대비, 임정귀국 환영위원회가 결성되었어요. 위원장에 金麗植, 부위원장에 金錫璜이었는데 金錫璜이 한때 광산업을 한 관계로 崔昌學과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崔昌學은 金錫璜의 권유에 따라 竹添莊을 임정에 기증했던거지요』

그러나 일제의 비호아래 치부한 사람으로서 얼마간 속죄하는 마음과 함께 재산을 보호하려는 속셈도 없지않았을 거라고 鮮于씨는 덧붙였다.

白凡은 竹添莊을 옛洞名을 따 京橋莊으로 바꾼뒤 그가 암살되기까지 약 4년간 파란의 세월을 이집에서보냈다.

京橋莊은 白凡서거후 崔昌學의 소유로 되돌아갔고 그뒤 한때 패망한 越南대사관으로쓰이다가 三星 李秉喆회장소유로 넘어갔다.

京橋莊이 원형이나마 보존되고있는것은 68년 三星에서 이곳에 고려병원을 지을당시 李회장이 이건물의 원형을살릴것을 특별히 지시했기때문이라고한다.

해방후 신탁통치반대운동과 통일정부수립을위해 투쟁한 白凡을 비롯한 臨政派의 본산이었던 京橋莊은 이제, 질병과 싸우는 병원으로 모습을 달리하고있다.

『이곳은 風水상으로 터가 센 곳이라고해요. 지금은 수많은 병원왕래객들의 발자국에 밟혀 地神도 꿈쩍을 못하고있는가봐요』라고 고려병원관리차장 姜太炯씨(43)는 말했다.

白凡이 잠들어있는 孝昌園은 白凡의 따뜻한 인간애가 숨쉬고있는 또하나의 현장이다.

1946년 白凡은 李康勳으로 하여금 일본에 묻혀있는 尹奉吉 李奉昌 白貞基등 3의사의 유골을 모셔오게한 후 손수 묘지를 찾아나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孝昌언덕에 자리를 정했다. 白凡은 또 1948년 아들 信을 중국으로보내 모친과 아내의 유골과함께 重慶에 묻혀있던 李東寧, 車利錫등 두 애국지사의 유골을 모셔온후 3의사 묘소 우측에 안장했다.

그러나 白凡은 누구보다도 만주旅順감옥에서 순국한 安重根의사의 유해를 고국에모셔야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같은 염원이 얼마나 지극했느냐는것은 1948년 金日成과의 南北회담의제 가운데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짐작된다.

孝昌園의 7의사墓는 자유당시절 권력자들에의해 헐릴뻔한 위기가 있었다. 집권층에선 눈의가시와같은 이묘소를 멀찍이 옮길 계획이었으나 金昌淑을 위원장으로한孝昌園선열묘소보존위원회의강력한 반대투쟁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게되자 孝昌운동장을 만든다는이유로 연못과 주위에 老松이 우거진 孝昌園의 아름다운경관을 불도저로 밀어버렸다.

당시 金昌淑은 『孝昌園을 헐고도 南山의 李承晩동상이 오래갈줄 아느냐』면서 극렬히 당국을 비난했는데 결국 李承晩의 동상은 4·19와함께 허물어졌고 대신 그자리에 白凡의 동상이 지난69년 세워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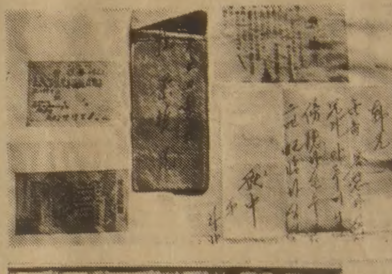
白凡의 생애가운데 역사가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암살범 安斗熙의 범행배경이다. 거의모두 알려지긴 했으나 범인 스스로의 입을 통한 고백의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81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던 사실이 알려져 여론을 비등케했던 安斗熙는 지금 70대 노인으로 은신생활을 하고있는것으로 전해지고있다.

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는 없지만 애국자를 죽인자가 잘되는 것은 국민윤리상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의 동태를 주시하고있다고 白凡기념사업회측은 밝혔다.

최근 기념사업회측은 安의 범행배경을 추측케하는 또하나의 단서를 입수했다. 그것은 옥중의 安斗熙가 방청권을 동봉, 東亞日報의 韓景哲기자 (작고)에게 재판을 방청해달라는 내용과함께 부친 한통의 편지다. 그는 방청권을 어떻게구했으며 어떻게 그처럼 당당할수 있었을까.

【林鍾乾기자】

◇최초로 공개된 金九의 데드마스크. 사망직후 고무로 얼굴의 본을 뜬후 석고로 찍어낸 모습이다.



◇金九암살범 安斗熙가 옥중에서 보낸편지와 동봉된 방청권 (봉투의앞쪽위에있는쪽지). 白凡기념사업회가 최근에 입수한 암살배후를 추측케하는 또하나의 단서다㊤. 고려병원의 정문이된 京橋莊. 2층 바른쪽 끝의 응접실이 金九가 암살된곳이다㊦.

自由·民主의 굳은信念

세계사에 드문 民衆의 지도자

劉英俊 <인하대교수·정치학>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선생이 비명에 간지도 금년으로 어언34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세상도 그동안 여러번 소용돌이치고 말았다.

그러나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우리에겐 결코 변하지 않고, 아니 변할래야 변할수조차 없는 한결같은 마음가짐 하나가 있으니, 바로 백범선생에 대한 우리들 모두의 애틋한 흠모요, 아쉬움 그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왜 이다지 그를 추모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그이야말로 바로 우리민족이 일찌기 가져본적이 없고 아마도 다시 보기 힘든 거룩한 정치지도자이기때문이다. 사실 백범 김구주석같이 위대한 민중의지도자는 세계사에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 백범선생의 위대성이란 어떤 점들인가, 간추려 생각해 보기로한다.

무엇보다 그는 사상과 이념이 투철한 지도자다. 민주·민족·문화주의가 그에게서는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신념체계이다.

그의 정치이념은 한마디로 표시하면 자유이며, 또한 그는 한나라가 가장 큰힘을 발휘할 수 있게하는 원동력을 민주주의에서 찾고 있다. 그의 자서전 백범일지 속의「정치이념」을 보면 이와같은그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

비단 신념뿐만아니라 그는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상해 임시정부의 권력구조를 국무령제에서 국무위원제로 개정하여 민주절차를 직접 이행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것은 수많은 정치지도자들이 말로만 민주주의를 외치고 간판으로 내세우되 실제로나 그 간판 뒤에서는 온갖 독재를 일삼아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백범선생은 참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였다.

그는 백범일지에서 『네소원이 무엇이냐』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하고 대답할 것이며, 세번을 고쳐 물으셔도 한결같이 그 대답은『우리 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인 것이라고 독립에 대한 염원을 피력했다. 그는 이소원을 위하여 70평생을 살았다.

그는 우리 대한이 완전 자주독립국이 되면 그 정부청사를 아침저녁 깨끗이 닦아내는 청소부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의실천을 위하여 털끝 만큼의 사심 (私心) 도 없었다. 바른길이 아니어든 천만금이 있어도 거들떠 보지 않으며 민족을 위한 길이 아니면 죽음도 불사하여 그 길을 가지아니하였다.

내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해서는 38선을 베개삼아 이 한몸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했다. 이는 하많은 이른바 자칭 정치지도자들이 말로는 이민족을 누구보다사랑한다 하거니와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매국배족을 일삼고 동족의 목숨마저 짓밟아 버리는 천인 공노할 만행을 서슴지 않는 것과는 실로 천양지차이가 있다.

그리고 백범선생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다. 그의 통치철학이 문화주의임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대목이다.

오직 높은 문화의 힘만이 우리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라하였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것은무력도 경제력도 아니며, 인의(仁義)와 자비와 사랑이라 하였다. 참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에 바탕을둔 소박하나 차원 높은 다스림의 목표요 철학이다.

이러한 통치철학은 지도자 누구에게나 찾아 볼 수 있는 예사일은 결코 아니다. 많은 얼빠진 지도자들이 통치철학을 말하고, 그럴싸한 이념을 말하지만, 기실 현실에 좇기거나 안주하여 힘의 논리만 내세우는 사이비 통치철학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리고 또한 백범선생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컸다. 그가 비명에간 1949년 6월26일이 비극적 동족상잔의 6·25동란으로 부터 꼭 한해전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은과연 무엇을 시사하는것일까? 사리사욕·사심의 정권욕으로 외세에 아부추종하여 저마다 남과 북에 단독정부를 세운 그찰나주의, 이기주의를 비전으로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네가 처해있는 해내외의 사정이 긴박하고 복잡할수록 우리들 모두가 티없이 맑은 사심없는 백범 김구선생을 더욱 소중히 마음에 간직하게된다. 오늘에 와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선생을 재조명하는일이 그 무엇보다 뜻깊은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版圖바뀐 世界알파인스키

美 男女선수 월드컵 종합우승 석권

금년도 월드컵·스키대회서 美國남녀선수가 나란히 종합우승, 세계 알파인스키판도를 뒤흔들어 놓았다. 작년 까지만해도 알파인 스키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등이 휩쓸어왔는데 美國이 유럽독주를 깨뜨리고 주역으로 등장했다. 미국이 단숨에 세계스키정상에올라선 비결은 기업의 후원과 과학적인 트레이닝 덕분.

여자부서는 타마라·매키니, 남자부서는 필·메어가 각각 종합우승을 차지했는데 스포츠는역시 부(富)와 비례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스키선수들이스포츠용품 메이커로부터 스키용구를 제공 받는것은 외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서도 공공연한 사실. 그러나 美國에서는 스포츠용구 메이커 이외의 스폰서가 붙는다.

예를들면 항공사를 스폰서로 할경우 싸게 또는 무료로 해외 각지를 돌아다니며 훈련할수 있다. 수개월간 원정이계속되지만 잠시동안 휴가를얻게되면 가족을 만나러 귀국, 기분을 풀후 경기에 임할수있다.

물론 계속 부진하면 스폰서와의 계약이 끊어질위험도 있다. 美國선수들이 연습을 열심히하는 이면에는「혜택을 받는 권리」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트레이닝에서 美國은 최첨단을 가고있다. 과학의 전문가가 활강할때의 이상적인 폼과 몸의 위치를 연구하고 유니폼과 헬멧의 저항을 조사해 실전에 활용한다. 또 한 알파인 스키선수는 스피드 감각을 기르는것이 중요한데 차위에 선수를 세워 놓고 질주하는 트레이닝을 하고있다.

스키에 강해질수있는 요체는 여름 연습이다. 美國 스키선수들은 테니스, 자전거, 승마, 농구, 하이킹, 스트레칭체조등 여러가지 스포츠를 하게된다. 농구를 하는데 하루 5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美國팀의 체이스 코치는『흥미없는 것을 아무리 오래해도 소용없다. 좋아하는것을 철저하게 하는것이 좋다』고 말하고있다. 日本의 경우만 해도 달리는 연습이 기본이고, 이밖에 자전거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획일적인 연습을 하고있다.

美國의 케리 감독은『현재 주니어(17세전후) 선수30명을 4년에걸쳐 강화훈련을 시키고있다. 이제부터 제2, 제3의 메어형제와 매키니가 탄생할 것이다』고 장담하고 있다. 이가운데는 이미 올시즌 유럽컵 활강서 1위를 차지한 선수도있다. 스포츠왕국美國은 내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서도 세계정상의 지위를 고수할것으로 보인다.

【閔炳宅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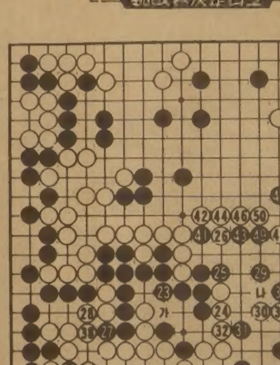
◇월드컵스키선수권대회 여자부 종합우승을차지한 미국의 타마라·매키니㊧와 남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필·메어.

第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3局 第8譜(123~152) (각5시간·덤5집반)

白 (7段) 徐奉洙 〈2勝1敗〉

黑 (4段) 姜勳 〈2勝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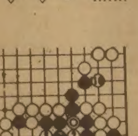
결국 黑대마는 白52의 일격으로 명맥이 끊어졌다.

당초 黑23을「가」에두어 후수반집이라도 보면서 수습했더라면 기사회생의 길도 트였을지 모르는것을 뒷날 黑27, 35를 보려고한것이 뼈아픈 실책. 그리고 더큰 문제는 黑29였다.

위급존망지추에서 평범하게 29에 둔 바람에 白도 평범한 30으로공격의 길을 열어 마침내 白52까지로 대군을 나포한것이다.

이다음 참고도처럼 黑1로끊어도 白2이하 8까지 계속죄붙이면 黑9는 ◎의 곳을 이어야하니 白10으로 건너가서 黑만 전멸을당하는 것이다. 姜4단이 돌을 거둔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黑 大馬 함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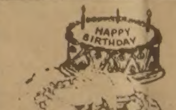
그러나 실상 白으로서는 이토록 심하게 잡으려할 필요는 없었다.

黑23의 시점에서 白의승리는 결정적이었으니 굳이 모험을 걸지말고 24로 26자리부터 다져가는것이 정수라는 중론이다.

요행 黑29가 무력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않고 黑「나」로부터 결사반격을 시도했더라면 白은 긁어 부스럼격인 고역을 치르고 승부도 어찌되었을지 몰랐다.

黑29의 변화는 다음보로 미룬다.

【一凡】



HoneyHome BakeShop

☎ : 961—9780 MRS. 장

☎ : 536—1908(R)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Tom Hwang Real Estate Limite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TELEPHONE 449-8644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4,500 $12,000 $14,000(황용현)
Discount스토아(주6일) $7,000(임윤식)
Tuck Shop 주매상 $3,000 $5,000(임윤식)
Nut Shop 시간짧고 바쁜 쇼핑센타내 아스킹 $30,000(황용현)

●과일가게 년매상 $500,000이상, 프라쟈내(임윤식)

●Fish & Chip 주매상 $8,000 쇼핑센타내 아스킹 $279,000(황용현)

●건물달린 가게
1)3 Bedroom 코너집, 빈가게자리, 가게꾸밀 분에 적합, $25,000 다운페이 가격 $165,000(황용현)
2)주매상 $7,000 2-Bedroom아파트, 80,000다운페이 합계(가게+건물) $25 0,000(유웅복)
3)주매상 $7,000 코너건물(서쪽지역) 가게와 건물 $330,000(황용현)

●꽃집: 다운타운 TTC주차장옆 27년된 꽃집, 짧은 시간(일요일 닫음) 아스킹 $45,000(황용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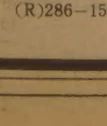
●투자용건물 1)한인상가에 있는 상용건물 $50,000 다운페이 $159,000 (황용현)
2)영 Street선상 투자용건물, 건물 3동 ($200,000다운) 아스킹 1백만불 (황 용현)
3)버라이어티 건물달린 아파트, 다운페이 $30,000 아스킹 $95,000(유웅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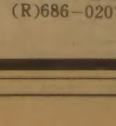
●플라쟈 1)32 Unit apt, 11% 모게지 가격 $690,000(이헌영)
2)4개의 Store $120,000(12% 모게지) 가격 $525,000(이헌영)
3)16개 가게 년수입 $240,000 다운페이 $750,000 12% 모게지 $2,350,000(황용현)
4)15개 가게 년수입 $120,000(11¼% 모게지) 가격 $1,350,000(유웅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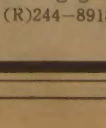
●주택 1)돈밀×로렌스, 방갈로 3베드룸, 쇼핑센타근처, TTC 10¾% $129,0 00(유웅복)
2)다운타운 타운하우스 3베드룸 13% interest 가격 $75,900(유웅복)
3)윌슨×쉐파드, Split House 3베드룸 지하실 잘 꾸며진 교통편리 $145,00 0(임윤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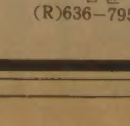
●드라이크리닝: 연매상 7만불 스카브로 로케이숀, 훼밀리 비즈네스, 아스킹 $48,000(황용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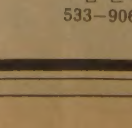
●버라이어티: 주매상 $7,500 최상의 장소, 아스킹 $125,000(이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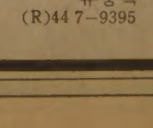

황용현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임윤식 (R)636-7950


임분옥 533-9061


유웅복 (R)44 7-9395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전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광고문의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 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illegible]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ACCOUNTANT SERVICES
김희체(David). 15 Jansusie(Alblon & Kipling)
전화 : (B)677-3270. (R)743-078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의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아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
다운타운 지역 사시는 분 환영
전화: 533-7759 Mr. 박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전화 : 622-2643

가정살림 도와주실분 구함.
전화 : 663-1941 Mr. 서

유경험자 주말헬퍼(토·일요일) 구함.
Mac's Milk, 아침 10시~저녁 10시까지
전화 : 421-1089(Eglinton & Laird Dr.)

재봉사 구함.
재봉사 풀타임(경험) Piece work $4.50~$5.00
전화 : 368-2819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합니다.
(10개월된 애기·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6-1212

살림과 가게일 거들어주실 중년 아주머니 구함.
입주 또는 출퇴근(입주시 독방드림) Steeles×Dufferin
전화: 669-5301 (저녁 6시 이후)

꽃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남자헬퍼 구함.
전화 : 485-9419

화장품 쎄일즈 하실분 구함.

연간 4억달러 이상의 화장용류 수출실적을 갖고 있는 일본공사(Japanese Corporation)는 캐나다 시장 확장의 일환으로 1층 점포를 마련하고 외판원을 구합니다.
화장품 계통으로 흥미나 장래를 꾸미고 싶으신 분 연락하세요. 좋은 대우.
★인터뷰 희망자는 전화 : 364-8932 Carol
NOEVIR EMPLOYMENT SERVICE

Korean Village Restaurant
주방 헬퍼 1명, 주말 파타임 웨이트레스 1명 구함.
628 Bloor St. W. Tor.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합니다.
전화 : 1-476-3109(Keswick) Mr. 신

주방에서 일하실분 1명 구함.
(능력에 따라 우대함)
전화 : 532-2727

룸 메이트 구함 (여자분 환영)
전화: 438-1528 Mrs. 김

2 Bed Rm. 아파트에 룸메이트 구함.
학생 또는 직장인 원함. 스카보로 지역. 월: $100
전화 : 266-6064 (오전중)

일본음식점 웨이트레스 급구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221 Ellesmere Rd.(Warden 서쪽)
전화 : 444-2211 Hamamoto Japanese Restaurant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구 혼

신부 구함. - 진실하고 건강한 여성 구함 - 저는 45년생(시민권 소지자)으로 개인가게를 갖고 있음. 꼭 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랍니다. 전화 : (B)273-3920, (R)273-9821 Mr.리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개 인 지 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숭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매 매

한국 전통의 고가구 팝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저녁7시부터 9시까지)
전화 : 248-6531 Mr. 김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월수입 : $6,900
전화 : 1-389-7755 (해밀톤) Mr. 차

일본음식점 매매.(건강이 좋지 않아서) 좋은 바겐. 가격이 다시 내렸음. 좋은 장소. 좋은 리스. 46 Seats. 술 라이선스. Bar 카운터. 전화 : 221-1621, 826-7676 메니저

맥스 프랜차이스 매매
.오샤와 지역
전화: 1-723-8632

몬트리올에 위치한 성업중인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000 권리금 : $40,000+스탁(Stock)
1주 6일 시간: 9a.m.~9p.m.

주소 : 8356 St.Laurent Blvd., Montreal H2P 2N3
전화 : (514) 381-2108 Mr. 이재록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건물 포함)
전화 : 547-0841(해밀톤) Mrs. 리

Dodge 밴트럭. 1981년 6기통. 27,000Km
아스킹 : $5,500
전화 : 622-2643

아케이드 머신 매매. 새 프로그램
값어치 있는 캐비넷. 라이선스 Board. 아스킹: $2,500
전화 : 881-5336(오후 2시전), 773-2231(오후 4시이후)

Thornhill, 아케이드 매매
좋은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썹머린 가게로도 적합등등.
전화 : 881-5336(오후 2시전), 773-2231(오후 4시이후)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2층 살림집 있음. 렌트: $625. 리스: 2년+2년
전화 : 465-4038 Mrs. Martin 아스킹 : $21,000+스탁

▲Bloor St. 인베스먼트 $179,900
▲Yonge st. 에 위치한 Fruit 스토아
주매상 $5,000. 렌트 $1,400. 가격 $60,000
▲Yonge St. 인베스트 빌딩. $269,900
전화 : 635-1170 박문희(Clara Park)
Royal Trust 4430 Bathurst St.

다운타운 Fast Food 레스토랑 매매. 주매상 $2,000+.
아스킹 $39,000. 전화 : 593-8967, 826-3450
Steven Do, P. Ho Real Estate Ltd.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5년리스(렌트 $1,100) 아스킹 4만+스탁(로타리오머신 및 비데오머신 2대)
전화: 535-1916

아파트먼트 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빌딩전체 매매
주매상 : $4,000+비데오(월 $500). Open 6개월
경쟁 없음. 전화 : 763-6723

2층 아파트딸린 가게 매매 또는 매니저먼트요함.
전화 : 1-727-6665 (Aurora)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렌트 $500. 리스 1년반+5년옵션
아스킹 $70,000+스탁. 전화 : 781-8968(오전9시-12시)

해밀턴에 있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아스킹 $45,000+스탁
3만5천 다운-몰게지. 전화 : 1-388-4825

가게나 빌딩을 파실려구요?
저희 매매난을 이용해 보세요.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 533-236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Bloor 한인상가에 있는 가게를 세놓습니다.
전화 : 255-2161 Mr. 김

3 Bed Room 렌트
456 Gerrard St. E. TOR.
전화: 921-4283 Mr. or Mrs. 윤

미시사가 3 Bed Rm. 디타치드 집.
Oak 나무로 층계 전부 되어 있고. 중앙식 에어 컨디션.
3 Baths. Family Rm. Laundry Rm.
Double Garage. 꼭 팔아야 함.
전화 : 279-5113 (영어로 문의 바람)

4 Bed Rm 하우스 렌트
스카보로 동쪽끝. 6월말에 입주 가능
전화 : 282-8066 Mr 리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종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토알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Prokerages Inc.
P.O. 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Big Fish Market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입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김